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제주지역 무역인력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學科

姜 世 源

2016年 6月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무역인력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of the trade
exper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學科

姜世源

2016年 6月

제주지역 무역인력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of the trade
exper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指導教授 羅 公 寓

姜 世 源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6月

姜世源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16年 6月

A Study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of
the trade exper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Won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Kong-Woo La)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June. 201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June. 2016.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3절 논문의 구성체계	4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제주지역 경제현황과 노동시장 분석	5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5
제2절 제주지역 경제의 일반현황	8
1. 산업활동동향	8
2. 수출입 동향	12
제3절 제주지역 고용동향	18
제 3 장 무역관련 업무의 범위 및 인력양성현황	20
제1절 무역관련 업무의 범위	20
1. 무역관련 직종의 분류	20
2. 무역관련 직무의 내용	22
제2절 무역관련 인력양성 현황	27
1. 정부 기관	27
2. 민간 및 기타 기관	28
3. 제주도 무역관련 지원정책	29
4. 제주지역 대학교육기관	32
제 4 장 제주지역 무역관련업 실태조사를 통한 무역인력 양성방안 ..	33
제1절 제주지역 무역관련업체 고용실태조사	33
1. 조사의 설계	33
2. 조사분석의 결과	33

제2절 제주지역대학생 취업의식조사	51
1. 조사의 설계	51
2. 조사분석의 결과	52
제3절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60
1. 설문조사분석	60
2. 고용창출을 위한 제주지역 무역관련 인력양성방안	64
제 5 장 결 론	69
참고문헌	72
Abstract	74

< 표 차 례 >

<표 I-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2016년 5월 기준)	1
<표 II-1> 선행연구 분석	6
<표 II-2> 연도별 제주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8
<표 II-3> 2014년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9
<표 II-4> 제주지역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	10
<표 II-5> 제주지역 산업생산지수 및 계절조정지수	10
<표 II-6> 제주지역 제품출하지수	11
<표 II-7> 제주지역 제품재고지수	11
<표 II-8> 제주지역 최근 수출입 추이(누계)	13
<표 II-9> 3월 지자체별 수출 및 증가율 현황	13
<표 II-10> 제주지역 주요 수출 품목 실적	14
<표 II-11> 제주지역 산업별 수출현황	15
<표 II-12> 제주지역 10대 수출 대상국 동향	15
<표 II-13> 제주지역 용도별 수입현황	16
<표 II-14> 제주지역 주요 수입 품목 실적	17
<표 II-15> 제주지역 10대 수입대상국	18
<표 II-16> 2016년 1/4분기 고용동향	19
<표 II-17> 제주도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19
<표 III-1> 무역관련 산업분류	20
<표 III-2> 무역관련 직종 분류	21
<표 III-3> GTEP사업단 선발현황	28
<표 III-4>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분야 시책	29
<표 IV-1> 조사기간	33
<표 IV-2> 기업체 일반적 특성	34
<표 IV-3> 인력 부족현황	35
<표 IV-4> 직종별 부족현황	35
<표 IV-5> 무역인력확보 애로요인	36

<표 IV-6> 무역인력부족 현상 극복 대책	36
<표 IV-7>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형태	37
<표 IV-8> 교육훈련 시 고려요인	37
<표 IV-9> 교육훈련 애로사항	37
<표 IV-10> 신규 채용 시 고려요인	38
<표 IV-11> 신규 채용 시 고려요인(평균)	39
<표 IV-12> 제주지역 대학생 채용계획	39
<표 IV-13> 학교 이론교육의 실무 응용정도	40
<표 IV-14> 무역업무 처리 시 밀접기관	40
<표 IV-15> 종업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대표적 교육훈련 방안	41
<표 IV-16> 수출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	41
<표 IV-17>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자금지원의 필요성	42
<표 IV-18> 고용유지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의 필요성	42
<표 IV-19> 신규채용 시 기초소양 중요도 1순위	43
<표 IV-20>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능력 1순위	43
<표 IV-21>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활용분야 1순위	43
<표 IV-22> 졸업생 재교육과정 제도의 필요성	44
<표 IV-23> 목표시장	44
<표 IV-24> 해외활동 방식	45
<표 IV-25> 경쟁력 결정요인	45
<표 IV-26> 수출활동 시 우선과제	46
<표 IV-27> 수출활동 성과 결정요인	46
<표 IV-28> 수출활동 시 애로사항	47
<표 IV-29> 수출경쟁우위 결정요인	47
<표 IV-30> 제품의 형태	48
<표 IV-31>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	48
<표 IV-32> 수출 마케팅 이용 방법	49
<표 IV-33> 수출 마케팅 활동 시 중점분야	49
<표 IV-34> 수출시장 확보방법	50
<표 IV-35> 수출관련 필요정보	50

<표 IV-36>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51
<표 IV-37> 조사기간	52
<표 IV-3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53
<표 IV-39> 조사대상자의 전공 관련 사항	54
<표 IV-40> 조사대상자의 전공 관련 사항	55
<표 IV-41> 제주지역 취업의 애로요인 정도	56
<표 IV-42> 직업선택 시 중요 요인	57
<표 IV-43> 취업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57
<표 IV-44> 정부 취업 프로그램 이용 경험	58
<표 IV-45> 워크넷 이용 경험	58
<표 IV-46> 정부 및 노동부의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59
<표 IV-47> 직무가치관	59
<표 IV-48> 개인생활 가치관	60
<표 IV-49> 제주특별자치도 2차 조직개편안	66

〈 그림 차례 〉

[그림 I-1] 연구의 전개과정	4
[그림 II-1] 제주지역 수출입 추이(월별)	12
[그림 II-2] 제주지역 최근 월별 수출 동향	14
[그림 II-3] 제주지역 월별 수입 동향	17
[그림 IV-1] 기업형태	34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제수지 세계최빈국으로 시작하여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경제성장을 한 성공사례이다. 2014년에는 무역 1조불을 달성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7천 달러 대에 진입하였으며 머지않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생산 설비의 기계·자동화로 기존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생산력이 증가하였고, 국내 노동력보다 저렴한 해외시장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하여 위와 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54개국과 FTA를 발효·타결하였으며(<표 I -1> 참조) 한국의 대외 무역의존도가 국민총소득(GNI)대비 88.1% 이상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해외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현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할 수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 I -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2016년 5월 기준)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발효(14건)	칠레	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	2006년 3월 발효
	EFTA(4개국)	2006년 9월 발효
	ASEAN(10개국)	상품-2007년 6월, 서비스-2009년 5월, 투자-2009년 9월 발효
	인도	2010년 1월 발효
	EU(28개국)	2015년 12월 전체발효
	페루	2011년 8월 발효
	미국	2012년 3월 발효
	터키(기본·상품무역협정)	2013년 5월 발효
	호주	2014년 12월 발효
	캐나다	2015년 1월 발효
	중국	2015년 12월 발효
	뉴질랜드	2015년 12월 발효
	베트남	2015년 12월 발효
타결	콜롬비아	2013년 2월 정식 서명

(2건)	터키(서비스·투자협정)	2015년 2월 정식 서명
협상진행 (4건)	한중일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2013년 3월~2014년 9월까지 총 5차례 실무협상
	RCEP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2013년 5월~2016년 2월까지 총 11차례 협상
	중미(6개국)	2015년 6월 협상개시 선언 2015년 9월~2016년 2월까지 총 3차례 협상
	에콰도르 SECA	2015년 8월 협상개시 선언
협상재개, 여건조성 (4건)	인도네시아	2012년 협상개시 선언 2012년 7월~2014년 2월까지 총 6차례 협상
	일본	2003년 12월 협상개시,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중단, 2008년 ~ 2012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협의 총 9 차례 개최
	멕시코	2007년 12월 협상 재개, 20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 후 중단
	GCC(6개국)	2008년 7월 협상 개시, 2009년 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협상준비, 공동연구 (3건)	MERCOSUR(5개국)	2005년 5월~2006년 12월 정부간 공동연구 완료
	이스라엘	2009년 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년 8월 완료
	말레이시아	2011년 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 2012년 12월 타당성연구 완료

자료 : FTA강국, KOREA(<http://www.fta.go.kr/main/>) 저자 재정리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으나 급변하는 무역환경변화(시장 개척, 시장정보 분석, 바이어 확보, 유통채널 확보, 자사 제품 홍보 및 촉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전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FTA시대를 맞아 경제 지도가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제주의 청정이미지에 부합하는 천연화장품, 농·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대두됨에 따라 업계에 대한 지원정책 및 상대적으로 낙후된 무역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는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적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주요 수단이 무역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전문무역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역인력양성’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제주지역에 맞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경제·고용동향을 분석하고 무역관련 업무의 범위와

인력현황에 대해 살펴본 뒤 수출기업의 고용실태조사와 함께 대학생들의 취업의식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제주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활동동향과 고용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논문, 국내학술논문, 국가·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발간한 단행본, 연구보고서, 통계청 조사월보를 참고한 이론적 접근방법과 제주지역 산업경제 현황 및 고용동향 분석, 제주지역 무역업체에 대한 고용실태조사 및 제주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직업의식 실태분석 실시, 제주지역 내에 정확한 무역관련 고용효과 분석을 통한 향후 고용정책 시사점 도출, 제주지역 무역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개발 제언을 위한 실증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주요 분석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동향 및 고용동향이며 분석기간은 각각 2004년에서 2016년으로 한다. 해당 분석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K-stat,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체 조사를 사용하였다. 실증적 접근방법으로 정확한 고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연구내용과 관련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문항목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한정하고, 2016년 5월1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는 업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제주대학교 경상계열 1~4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방법과 내용, 논문의 구성체계를 기술하였다.

제2장은 선행연구의 검토, 제주지역 경제의 일반현황과 고용동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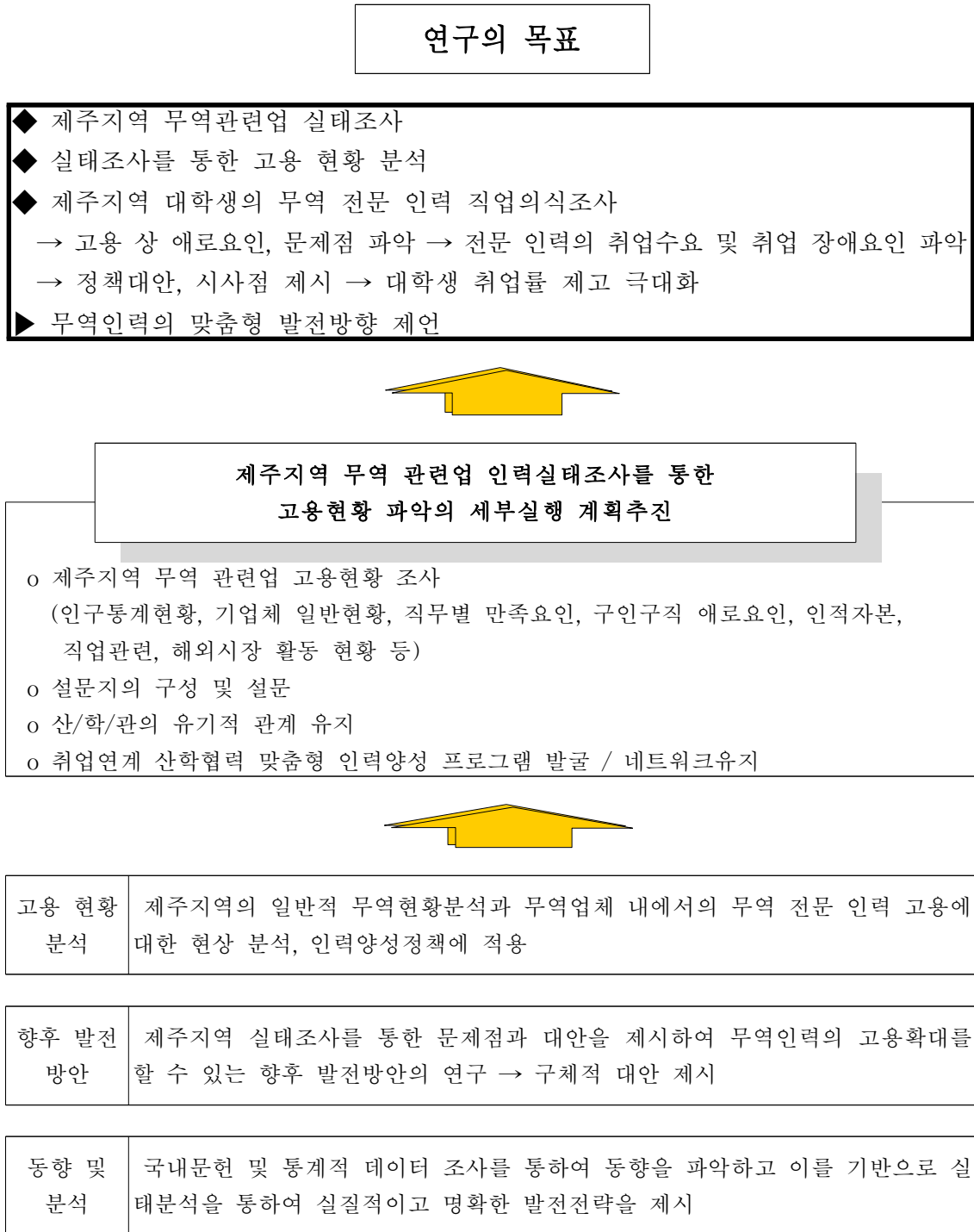
제3장은 무역관련 업무의 범위를 분석하고 무역인력양성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은 제주지역 무역관련업 고용실태조사와 함께 대학생 대상 직업의식 실태조사·분석을 통하여 향후 고용창출을 위한 맞춤형 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3절 논문의 구성체계

[그림 I -1] 연구의 전개과정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제주지역 경제현황과 노동시장 분석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무역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중심의 인력양성 정책은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해결방안으로는 정부부처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안세영 외 1명(1999)은 21세기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사이버 무역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국제무역 패턴의 사이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 기업, 민간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효율적으로 역할분담을 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훈(2003.12)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무역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수·무역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기업이나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역인력 공급기반 확충, 업계에 부응한 양질의 무역인력 공급, 중소기업 등의 재직자 재교육기반 강화, 국제화·현지화 된 무역인력 양성체제 강화, 산·학 협동 무역실무시스템 확보를 제안했다.

한영수(2003.12)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비한 무역관련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교육의 문제점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무역 관련학과 교육 개선,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한 OJT교육 강화, 민간교육기관 교육체제 강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다양화, 전자무역 및 IT 마스터과정·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TI사업운영을 제안했다.

김학민 외 2명(2006.06)은 무역학과 재학생들의 경력개발효과를 검증하고, 경력개발계획 수립이 경력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따라 무역인력양성에서 조기경력개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민 외 2명(2008.11)은 무역인력의 기대/불일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무역인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을 하였으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역량 육성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민 외 1명(2009.08)은 무역인력의 성장경로를 분석하고 무역인력의 유지가 안

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 이를 통하여 무역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함께 사회적·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민 외 1명(2010.06)은 무역인력 교육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대학교육이 무역인력의 핵심역량 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실증분석을 도출하였고, 이에 무역인력의 핵심역량 개발은 구성원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영역에 따라 차별화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호형(2015)은 대학 산학협력 무역인력 양성사례의 실증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의 산학협력 무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에 산학협력 무역교육에 초점을 두고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며 대학생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제안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효과적인 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최초의 연구로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무역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 선행연구 분석

연구 주제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무역인력양성	·안세영, 심상렬(1999)	·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사이버 무역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국제무역 패턴의 사이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 기업, 민간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효율적으로 역할분담을 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함
	·이승훈(2003.12)	·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무역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수·무역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기업이나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역인력 공급기반 확충, 업계에 부응한 양질의 무역인력 공급, 중소기업 등의 재직자 재교육기반 강화, 국제화·현지화된 무역인력 양성체제 강화, 산·학협동 무역실무시스템 확보를 제안함

·한영수(2003.12)	·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비한 무역관련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교육의 문제점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무역관련학과 교육 개선,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한 OJT교육 강화, 민간교육기관 교육체제 강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다양화, 전자무역 및 IT 마스터과정·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TI사업운영을 제안함
·김학민, 이호형, 안지정(2006.06)	· 무역학과 재학생들의 경력개발효과를 검증하고, 경력개발계획 수립이 경력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따라 무역인력양성에서 조기경력개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함
·조정곤(2008.03)	· TI사업의 산·관·학 협력을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역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산·관·학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무역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김학민, 이호형, 이흥기(2008.11)	· 무역인력의 기대/불일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무역인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을 하였으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역량 육성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김학민, 이호형(2009.08)	· 무역인력의 성장경로를 분석하고 무역인력의 유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 이를 통하여 무역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함께 사회적·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학민, 이호형(2010.06)	· 무역인력 교육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대학교육이 무역인력의 핵심역량 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실증분석을 도출하였고, 이에 무역인력의 핵심역량 개발은 구성원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영역에 따라 차별화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호형(2015)	· 대학 산학협력 무역인력 양성사례의 실증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의 산학협력 무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에 산학협력 무역교육에 초점을 두고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며 대학생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제안함

자료 : 관련 논문을 참조하여 저자 재정리

제2절 제주지역 경제의 일반현황

1. 산업활동동향

1) 제주지역 내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014년 제주도내 사업체 수는 2004년 4만2천5백3십1개 보다 1만1천3백6십6개 증가한 5만3천8백9십7개이고, 종사자 수는 2004년 1십6만7천6백1십2명보다 6만8천3십8명 증가한 2십3만5천6백5십 명이다. 전년 대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대략 4.2% 와 3.9%로 전국 평균 증가율 3.70%, 3.79%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율로 보았을 때 제주도는 1.41%에 불과하다. 이는 제주도의 일자리가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I-2> 연도별 제주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연 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년 대비 증 감 률		전년 대비 증 감 률
'04	42,531	-	167,612	-
'05	43,305	1.8	171,844	2.5
'06	43,609	0.7	176,648	2.8
'07	44,246	1.5	178,982	1.3
'08	44,307	0.1	180,882	1.1
'09	45,990	3.8	200,130	10.6
'10	45,830	- 0.3	202,676	1.3
'11	47,144	2.9	203,757	0.5
'12	49,252	4.5	211,468	3.5
'13	51,727	5.0	226,734	7.2
'14	53,897	4.2	235,650	3.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5.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II-3> 2014년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

지역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국	3,812,820	100.00	19,899,786	100.00
서울	812,798	21.32	4,739,883	23.82
경기	810,260	21.25	4,471,773	22.47
부산	277,713	7.28	1,325,781	6.66
경남	258,713	6.79	1,325,862	6.66
경북	213,813	5.61	1,028,921	5.17
대구	198,764	5.21	866,599	4.35
인천	183,595	4.82	931,822	4.68
충남	154,038	4.04	812,822	4.08
전북	144,902	3.80	646,651	3.25
전남	142,932	3.75	656,218	3.30
강원	133,314	3.50	565,568	2.84
충북	119,499	3.13	620,557	3.12
광주	111,285	2.92	537,822	2.70
대전	109,535	2.87	556,297	2.80
울산	78,638	2.06	506,899	2.55
제주	53,897	1.41	235,650	1.18
세종	9,124	0.24	70,661	0.36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생산지수

2015년 12월 기준 제주지역 산업생산지수는 144.2(2010=100%)로 전년 동월대비 음료(31.7%/생수, 탁주, 혼합음료), 종이제품(22.4%/골판지원지), 고무 및 플라스틱(13.8%/플라스틱 포장용기, 발포성형제품) 이 증가하였으나 식료품(-20.0%/오렌지원액, 가공혜조류, 설탕과자), 화학제품(-3.4/복합비료), 비금속광물(-1.2%/콘크리트벽돌 및 블록, 건설용석제품, 레미콘)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4> 제주지역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

(전년동기비, %)

	2014 1/4	2014 2/4	2014 3/4	2014 4/4	2015 1/4	2015 2/4	2015 3/4	2015 4/4 ^P
총지수	-3.3	5.6	0.2	2.2	19.3	4.2	5.1	1.9
광업	23.7	-1.2	-4.1	-10.6	-5.5	29.6	20.2	2.5
제조업	-10.4	9.6	3.5	3.3	29.0	2.9	-2.1	0.0
식료품	-13.2	-1.7	-16.2	-7.3	36.6	-9.2	-10.1	-10.7
음료	-7.1	20.5	18.5	10.8	32.5	12.8	-1.4	18.5
비금속 광물제품	-24.8	6.1	10.8	25.1	37.6	4.0	0.4	-4.2
고무·플라스틱제품	-1.8	31.7	35.4	33.8	41.8	24.3	16.1	16.1
펄프, 종이	2.3	-5.6	-15.7	-7.7	-22.9	-7.1	9.5	3.3
화학물질	24.4	1.1	-4.3	13.4	-28.9	-29.0	-27.2	-6.3
금속가공제품	39.5	59.7	17.4	15.9	10.9	-10.0	25.7	65.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9	-6.0	-5.7	21.7	-1.7	12.2	17.1	12.0
전기·가스·수도사업	11.1	-2.2	-6.1	1.7	3.1	1.8	19.6	7.6

자료: 호남지방통계청. 2016. 『2015년 4/4분기 및 연간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

<표 II-5> 제주지역 산업생산지수 및 계절조정지수

(2010=100, %)

생 산		2014년			2015년			
		연간	4/4	12월	4/4 ^P	10월	11월 ^P	12월 ^P
지수	원계열	117.2	140.9	146.3	143.6	144.7	141.9	144.2
	계절조정계열	-	119.5	105.2	124.3	151.7	117.3	104.0
증감률	전월(기)비	-	-4.0	-12.6	-4.6	18.0	-22.7	-11.3
	전년동월(기)비	1.1	2.2	-8.5	1.9	12.4	-3.9	-1.4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2016. 『2015년 12월 제주지역 산업활동동향』

3) 출하지수

제주지역 출하지수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127.1(2010=100%)이며, 전년동월대비 금속가공제품(117.2%/새시문 창틀), 고무·플라스틱 제품(19.2%/발포성형제품, 플라스틱포장용기, 플라스틱 관 및 봉), 음료(14.5%/생수, 소주, 탁주)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식료품(-37.7%/오렌지원액, 전분, 두부), 화학제품(-10.4%/복합비료)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6> 제주지역 제품출하지수

(2010=100, %)

구 분		2014년			2015년			
		연간	4/4	12월	4/4 ^p	10월	11월 ^p	12월 ^p
지수	원계열	114.6	133.2	146.4	124.2	116.0	129.5	127.1
	계절조정계열	-	116.6	107.8	110.6	123.2	114.6	94.0
증감률	전월(기)비	-	-5.1	-5.9	-13.7	-3.5	-7.0	-18.0
	전년동월(기)비	-0.1	0.5	-8.2	-6.8	-6.3	0.2	-12.2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2016. 『2015년 12월 제주지역 산업활동동향』

4) 재고지수

제주지역 재고지수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204.4(2010=100%)이며, 전년동월대비 생산제품의 재고는 비금속광물(-55.3%/흡관, 콘크리트벽돌 및 블록, 콘크리트파일 및 전주), 화학제품(-17.1%/)이 감소추세이고 음료(82.9%/생수), 식료품(61.2%/오렌지원액, 치즈, 배합사료), 종이제품(30.9%/골판지원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7> 제주지역 제품재고지수

(2010=100, %)

구 분		2014년			2015년			
		연간	4/4	12월	4/4 ^p	10월	11월 ^p	12월 ^p
지수	원계열	145.8	145.8	145.8	204.4	190.4	195.0	204.4
	계절조정계열	-	145.6	145.6	203.8	220.7	210.9	203.8
증감률	전월(기)비	-	1.5	-13.0	3.0	11.5	-4.4	-3.4
	전년동월(기)비	47.7	47.7	47.7	40.2	41.1	25.3	40.2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2016. 『2015년 12월 제주지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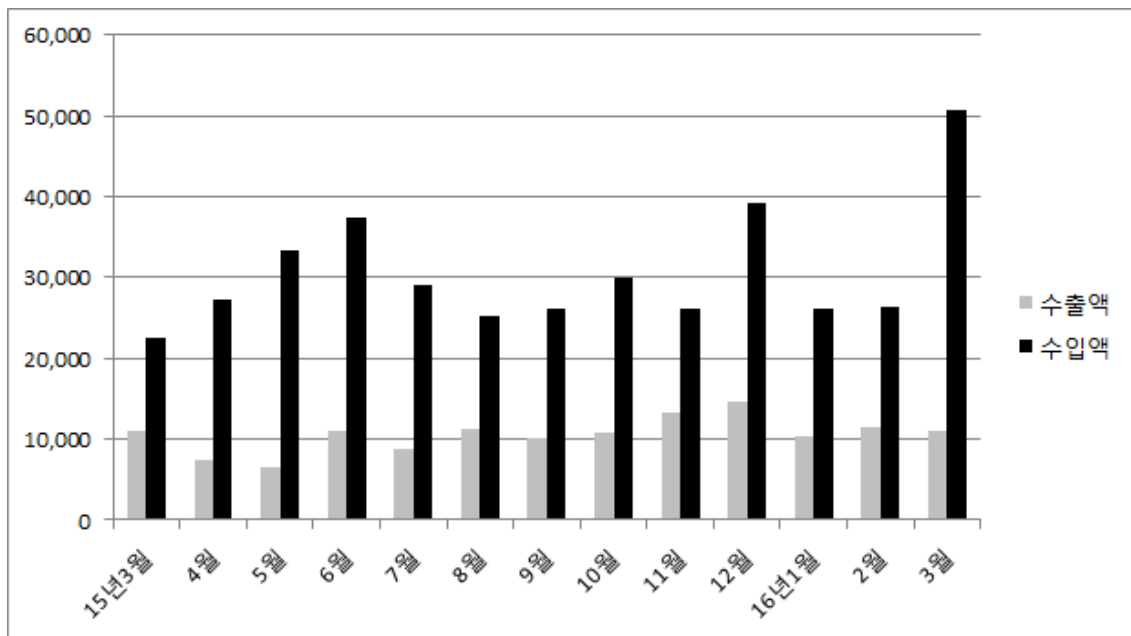
2. 수출입 동향

1) 수출입추이

제주지역의 2016년 3월 수출액은 1천9십7만7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였고 1~3월 수출 누계액은 3천2백7십3만7천불이다. 2016년 3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7%가 증가하여 5천6십4만2천불 이고 1~3월 수입 누계액은 1억2백9십5만7천불을 기록했다. 수출은 월 1천만 불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0.1% 둔화되었으며 수입은 2012년 7월 7천6백6십7만5천불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다. 이는 수출은 정체되고 수입은 급증하였음을 의미한다. 전국 대비 수출액(4백3십억9백1십6만1천불) 비중은 0.03%, 수입액(3백3십1억5천3백8십2만3천불) 비중은 0.15%를 보였다. 무역수지는 3천9백6십6만5천불 적자로 이는 2014년 10월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2015년 기간 동안 기초화장품, 주류 등의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II-1] 제주지역 수출입 추이(월별)

(단위 : 천불)



자료 : 한국무역통계(www.stat.kita.net)

<표 II-8> 제주지역 최근 수출입 추이(누계)

(단위 : 백만달러, 전년 동기비 %)

구분	'15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수출액	10	7	6	11	8	11	10	10	13	14	10	11	10
증가율	23.3	-1.1	-12.1	35.7	34.3	48.5	33.5	17.2	-4.7	18.2	17.2	61.2	0.1
수입액	22	27	33	37	29	25	26	30	26	39	26	26	50
증가율	10.1	21.6	35.5	83.9	30.5	-15.5	-3.0	-39.7	16.6	16.1	8.7	36.7	124.7
무역 수지	-11	-19	-26	-26	-20	-13	-16	-19	-12	-24	-15	-14	-39

자료 : 한국무역통계 www.stat.kita.net

2) 수출추이

2016년 3월에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수출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25.1%), 서울(12.4%), 대전(12.3%) 경남(4.0%), 제주(0.1%) 5개 지역뿐이며, 2016년 1월~3월 수출 누계액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27.0%), 제주(21.8%), 서울(7.7%) 3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표 II-9> 3월 지자체별 수출 및 증가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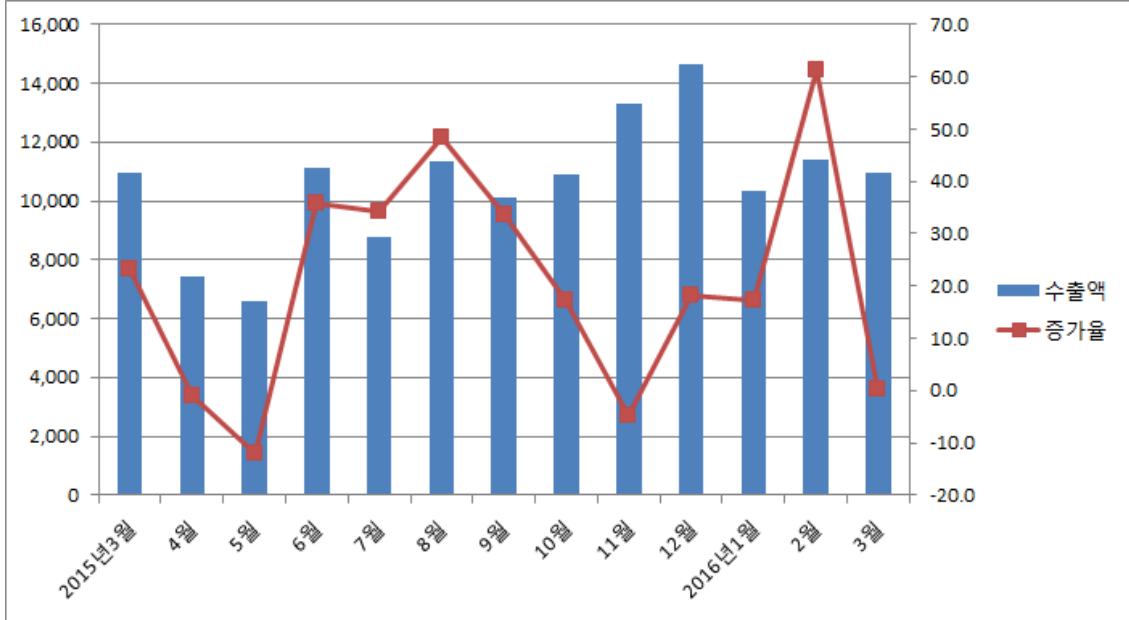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지 역	2015년 3월		2016년 3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46,822	-4.6	43,009	-8.1
경기	9,633	1.4	8,083	-16.1
울산	7,394	-5.2	5,790	-21.7
서울	4,939	-8.6	5,438	12.4
충남	5,710	1.9	5,292	-7.3
경남	3,475	-25.5	3,612	4.0
경북	3,828	-14.8	3,412	-10.9
인천	2,594	5.5	3,245	25.1
전남	3,039	-12.3	2,187	-28.0
광주	1,415	3.1	1,410	-0.4
부산	1,451	24.1	1,348	-7.1
충북	1,353	18.6	1,291	-4.6
대구	627	-6.9	619	-1.3
전북	798	5.0	603	-24.5
대전	381	-4.6	428	12.3
강원	180	3.1	150	-16.7
세종	89	13.1	83	-6.6
제주	10	23.3	10	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2016년 3월 제주지역 수출입동향』

[그림 II-2] 제주지역 최근 월별 수출 동향

(단위 : 천불)



자료 : 한국무역통계(www.stat.kita.net)

<표 II-10> 제주지역 주요 수출 품목 실적

(단위 : 천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품목명	2015년(3월)		2016년(3월)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합계	10,971	23.3	32,737	21.8
1	모노리식집적회로	4,387	486.4	10,071	14.4
2	넙치류	2,160	-1.8	5,493	-5.6
3	차량용연료펌프	-	-	2,242	0.0
4	소라	654	-37.4	1,735	-11.9
5	양배추	103	-83.6	917	119.3
6	사출식금속주형	-	-	1,320	0.0
7	생수	187	4.9	801	47.2
8	심비디움	276	27.6	538	-1.1
9	조각공예품	264	1166.2	520	15.6
10	투스	-	-	161	-27.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2016. 『2016년 3월 제주지역 수출입 동향』

<표 II-11> 제주지역 산업별 수출현황

(단위 : 천달러, 전년동기대비 %)

품목 구조별	2016년 3월		2016년 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2,737	21.8	64,830	25.3
1차산품	15,974	8.8	31,402	4.8
공산품	16,763	37.4	33,428	54.1
경공업 제품	1,029	14.8	1,866	27.8
중화학 제품	15,734	39.2	31,562	56.1
IT 제품	10,213	10.6	20,730	26.1
기타	5,522	166.7	10,832	204.9

자료 : 한국무역통계 www.stat.kita.net

주요 수출 품목 동향으로 모노리식직접회로가 3백2십7만9천불대로 수출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월대비 25.3% 감소하여 총 수출액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 1위 수출품목인 납치 또한 전년 동월대비 16.8%가 감소한 1백7십9만7천불대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까지 1차 산품(농수산물)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으나, 2015년부터 1차 산품과 공산품 간 격차가 줄었으며, 2016년에는 공산품이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모바일직접회로 차량용연료펌프, 사출식금속주형, 조각공예품). 공산품 중 중화학 제품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며 모든 산업 품목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12> 제주지역 10대 수출 대상국 동향

(단위 : 천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 분	품목명	2015년(3월)		2016년(3월)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합계	10,971	23.3	10,971	0.1
1	일본	3,339	-34.2	3,513	5.2
2	미국	1,303	48.8	1,702	30.6
3	홍콩	3,256	203.0	1,589	-51.2
4	중국	399	-45.4	1,555	289.8
5	대만	276	43.1	553	100.3
6	독일	1,173	6,456.3	493	-58.0
7	인도	3	366.0	290	9,096.9
8	아랍에미레이트	18	-62.2	185	900.8
9	태국	165	74.6	135	-18.2
10	호주	14	50.8	121	77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2016년 3월 제주지역 수출입동향』

전통적으로 제주도 수출지역 1위인 일본은 2014년 엔저현상¹⁾의 지속으로 수산물 수출이 급감하였지만 소라와 심비디움, 백합의 수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공산품 수출국의 호조가 눈에 띄는데, 미국의 경우 주요 수출 품목인 납치류가 -2.1%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연료펌프가 수출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인도 역시 차량용연료펌프의 수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은 모노리식직접회로를 생산·수출하는 제주도 기업이 대홍콩 수출에 집중함으로써 2014년~2015년에 2위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지만 2016년 3월에는 56.5%가 감소하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산품의 수출국은 증가하였으며, 농수산물 수출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수입추이

<표 II-13> 제주지역 용도별 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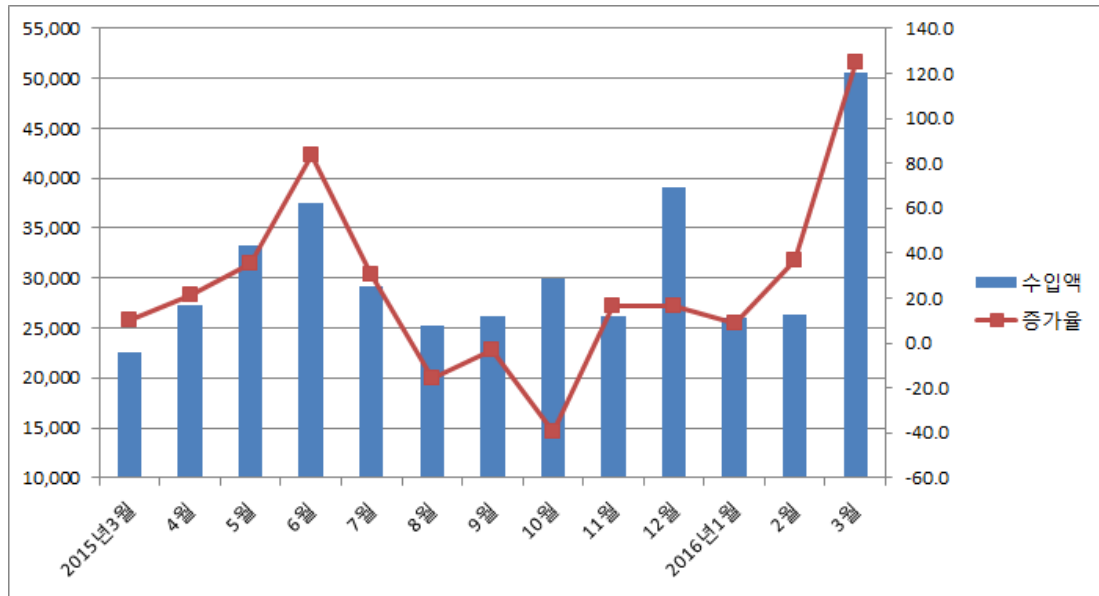
품목 구조별	2016년 3월		2016년 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02,957	56.7	181,315	28.9
원자재	16,130	103.1	31,109	98.4
자본재	33,021	201.5	45,111	74.8
소비재	53,805	14.9	105,094	7.2
직접소비재	17,250	23.6	34,452	16.7
내구소비재	7,427	-14.9	15,238	-23.8
비내구소비재	29,127	20.7	55,403	15.0
기타	2	493.7	4	369.6

자료 : 한국무역통계 www.stat.kita.net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 3월 수입금액은 2015년 3월 2천2백5십3만9천불에서 124.7% 증가한 5천6십4만2천불을 기록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성질별로 살펴보면 자본재 201.5%(3천3백2만1천불), 원자재 103.1%(1천6백1십3만불), 소비재 14.9%(5천3백8십만5천불) 순으로 내구소비재(-14.9%)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수출용은 감소하고 내수용이 증가하였다. 금액으로 보면 소비재(내수용)전체 수입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항공기 엔진이 특수하게 증가하였으며, 그밖에 소비재 수입은 30% 가량 증가하였다.

1) 엔저현상은 양적완화정책인 아베노믹스 시행,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으로 인한 엔화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나타나게 되었음(자료:현대경제연구원)

[그림 II-3] 제주지역 월별 수입 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www.stat.kita.net)

<표 II-14> 제주지역 주요 수입 품목 실적

(단위 : 천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품목명	2015년(3월)		2016년(3월)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합계	22,539	10.1	50,642	56.7
1	항공기엔진	-	-	19,991	0.0
2	기초화장품	3,287	51.7	4,202	12.2
3	유박	1,024	-28.8	1,590	48.2
4	립스틱	855	138.6	1,586	80.4
5	향수	1,292	38.4	1,436	30.4
6	다이오드	1,244	1,234.8	1,291	31.6
7	사료용옥수수	708	121.6	989	-43.9
8	철구조물	-	-	811	0.0
9	메이크업용화장품	730	46.6	789	24.5
10	담배	628	193.7	787	33.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2015년 제주 수출입 평가 및 2016년 전망』

국가별 수입 동향으로는 칠레가 3,21,910.0%(소나무/6십3만6천불)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미국 502.5%(항공기엔진/1천9백9십9만1천불), 중국 257.7%(철구조물/8십1만1천불), 캐나다 158.0%(립스틱/3십4만1천불)이 주로 증가했다. 2016년 3월 총 수입금액은 전년 동월대비 2.24배 증가한 5천6십4만2천불로 나타났다.

<표 II-15> 제주지역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 천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품목명	2015년(3월)		2016년(3월)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합계		22,539	10.1	50,642	124.7
1	미국	4,177	-1.5	25,264	502.5
2	중국	1,526	-21.7	5,459	257.7
3	프랑스	4,419	47.5	4,637	4.9
4	일본	2,016	0.0	2,654	31.6
5	아르헨티나	-	-	1,697	0.0
6	영국	1,370	-18.1	1,336	-2.5
7	캐나다	492	3,646.5	1,269	158.0
8	이탈리아	1,052	-22.2	1,249	18.6
9	대만	1,633	131.5	1,037	-36.5
10	칠레	-	-	644	3,211,9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2016년 3월 제주지역 수출입동향』

제3절 제주지역 고용동향

2016년 1분기 기준 제주도내 15세 이상인구는 총 5십만6천명으로 전년동분기와 비교하여 4.9%(2만4천명)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분기 대비 7.5%(2만4천명)증가한 3십4만9천명으로 조사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7% 증가한 69.1%를 기록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는 1십9만1천명, 여자는 1십5만8천명이다. 전체 취업자는 3십4만1천명이고 그 중 청년취업자(15세~29세)는 4만8천명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6천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업자는 전년동분기 대비 3천명이 증가하여 8천명으로 2.3%를 보였으며 2015년 실업자가 월 평균 6천명임을 감안할 때, 실업자의 증가율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16> 2016년 1/4분기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p)

구 분	2015. 1/4	2016. 1/4	전년동분기대비		전분기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82	506	24	4.9	6	1.2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325 (67.4)	349 (69.1)	24 1.7	7.5 -	-3 -1.4	-0.8 -
남 자	179	191	12	6.7	-1	-0.3
여 자	146	158	12	8.5	-2	-1.4
취 업 자	320	341	22	6.8	-5	-1.5
청년취업자(15세~29세)	42	48	6	14.7	-1	-1.2
실 업 자 (실업률)	5 (1.6)	8 (2.3)	3 0.7	50.9 -	2 1.5	40.4 -
비경제활동인구	157	157	-1	-0.4	9	6.2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http://kostat.go.kr/office/hnro/index.action>)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2016년 3월 기준 3십3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7.3%로 전월 동월대비 1.6%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각각 3십4만8천명, 69.6%로 2015년 11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5년 3월 이후 제주지역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 실업자 수는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71.4%)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1%로 0.8%p 증가했다.

<표 II-17> 제주도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p)

구 분	'15.03	'15.10	'15.11	'15.12	'16.01	'16.02	'16.03
	연간	1/4	3월	1/4 ^p	1월	2월 ^p	3월 ^p
취업자	318	346	348	346	341	342	342
전년동월증감	2	25	26	24	18	24	24
고용률	65.7	69.5	69.6	68.9	67.7	67.5	67.3
전년동월증감	-1.2	2.1	2.2	1.6	0.4	1.6	1.6
실업자	4	6	6	6	7	10	7
전년동월증감	-3	0	0	1	1	4	3
실업률	1.3	1.6	1.6	1.6	1.9	2.9	2.1
전년동월증감	-0.9	0.0	0.0	0.1	0.2	0.9	0.8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http://kostat.go.kr/office/hnro/index.action>)

제 3 장 무역관련 업무의 범위 및 인력양성현황

제1절 무역관련 업무의 범위

1. 무역관련 직종의 분류

현재 무역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무역 관련업의 종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관련 직업 및 산업을 추출·분류를 해야 한다. 무역과 관련 있는 사회진출분야는 일반적으로 직업분류측면에서의 관련분야와 산업분류측면에서의 관련분야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분류와 산업분류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다.

<표 III-1> 무역관련 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명	전산업(교차산업)
1				사무 및 유사직
2				
3				
4				
5				전문 및 유사직
6	도매업	무역업	일반무역업 무역중개업	
7	운수 및 창고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송업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	
		운수관련서비스업	운수부대서비스업 보안 및 창고업	
8	금융업	금융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금융서비스업	
9				

자료 : 노동부

<표 III-2> 무역관련 직종 분류

직군명칭	직렬명칭	직종명칭	직업명칭
사무실관련 직군	사무원감독직렬	사무원감독직종	수출사무관리자
	경리·출납 및 관련 직업	경리 및 출납직종	내국신용장사무원, 수출금융사무원, 외화출납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리·출납 및 관련 직종	관세환급사무원, 금융기관서류사무원, 네고(nego)사무원, 무역외지급인증사무원, 수입업무사무원, 수출관리사무원, 수출금융사무원, 수출사무원, 외화금융사무원, 코레스사무원(외국환계정사무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 및 관련 직종	물품관리직종	보세창고관리자, 하역관리원
		자재계획 및 생산계획 사무직종	소요량사무원, 자재수급사무원, 자재수물원
		문서 및 보고 사무 직종	관세사무원, 무환(無換)수입통관원, 보세화물사무원, 수입재통관사무원, 수입화물운송사무원, 수출기획원, 수출사무원, 수출서류처리사무원, 수출이행보고원, 수출입승인사무원, 수출재통관사무원, 수출화물운송사무원, 시설재수입사무원, 신용장사무원, 외자도입사무원, 외환기획사무원, 정책반영사무원, 통과화물사무원, 통관사무원, 화물운송장인도사무원,
판매중사 직군	도·소매자영직렬	도·소매자영직종	무역업자(오피상인, 수출업자, 수입업자)
	기술판매·판매외 주·제조업체 판매대행	기술판매·서비스지 도직종	항공기기기술판매원
		판매외주·제조업체· 판매대리인직종	수입판매대리인, 수출판매대리인, 해외주재판매원
보험·부동산·증 권·기업·서비스 판매·경매직렬	보험·부동산·증권거 래 직종	국제투자신탁사무원	

자료 : 노동부

2. 무역관련 직무의 내용

앞에서 추출 및 분류한 무역관련 직업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해야하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인 작업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무역관련 직업 별 직무분석을 다음과 같이 조사했다²⁾.

1) 수출관리 사무원

수출절차에 따른 수출인증발생, 배선요청, 외상매출채권관리, 관계기관 관련 업무를 주어진 일정에 따라 수행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은 수출부서로부터 수출인증신청요청이 접수되면 구비서류를 확인,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관련수출조합의 수출추천을 받아 관계은행에 수출인증(E/L)발행을 신청한다. 수출인증이 발급되면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수출부서로부터 배선요청을 받아 관계 대장에 기입하고 선주협회에 배선요청한다. 외상매출채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상매출관계서류를 분류, 정리하고 임금보고상의 오차, 송품명세서오차, 네고(NEGO)지연사유 등을 확인한다. 합동사회자료와 수출 및 수출실적분석자료 등을 참조하여 자체계획 및 선적, 수출정책을 수립한다.

2) 수입업무 사무원

수입신용장의 개설 및 선적서류인도, 수입어음의 결제 및 외화보증서발급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은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접수하여 필요사랑을 기재하고 신용장개설 수수료, 전신료 등의 수수료를 수납 받고 소정의 서류를 검토하여 통지은행 앞으로 개설·통지한다. 선적서류를 접수하여 신용장 조권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선적서류 수도부에 가입한다. 의뢰인 앞으로 전화나 우편으로 선적서류내도 통지 및 수입어음 결제대전을 결제하도록 통지하고 선적서류 수취증을 접수하여 인감대지 및 선적서류 접수장에 기입하여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어음 결제를 위하여 일람불어음은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일정이내에 결제하도록 하고 기한부어음은 선적

2) 라공우, 인천지역 무역관련업 고용실태조사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연구(무역, 물류, 관세사업중심으로),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2008

서류 원본 도착인에 어음을 인수하여 말기일은 확정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접수하여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심사하고 발급대장에 주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3) 수출금융사무원

수출지원 금융 및 외국환 관계지급증명업무를 통해 적결수요자에 대한 수출금융을 취급하고 그 회수사무와 사후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취급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은 수출업자에게 수출지원금융의 종류와 방법 등 제반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고 적격용자대상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토록 한다. 금융신청서류에 대하여 관계 법령, 규정, 자격, 시기,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접수부에 기재하고 채권보전절차를 위한 제반서류의 확인을 한 후 품의서를 작성하고 승인조건을 이행하면 수입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에 대한 외화지급을 보증하고 용자적기에 가득액 금융과 원자재금융을 기준하여 대체 처리한다. 용자기간 만료시나 수출대금이 입금될 때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을 매입할 때에 회수, 기표하고 관계 장부에 기표한다. 용자기한 내에 대항수출 또는 공급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용자기간 경과 후 이자를 추정할 경우에 관계 장부에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기재한다. 담보 취득된 대지, 가옥, 동산, 유가증권 등의 관리대장 정비유무를 현장 답사하여 이상 유무를 검토한다.

4) 무역외자금 인증사무원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인허가 및 무역외지급을 위하여 제반서류를 접수하여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며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행자수표의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은 외국환 관리규정 및 무역외 자금인증 취급기준에 의거하여 인증항목별 제구비서류의 구비여부와 인증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여 무역외 지급인증서를 발급한다.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부속증거서류와 함께 월별로 철하여 한국은행에 심사의뢰하고 심사 완료된 인증서는 월별로 보관한다. 여행자수표 판매 신청이 있으면 지급허가서와 여권 등의 참조하여 외화지급이 가능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여행자수표대전 및 판매 수수료전표를 작성하여 수납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여행자수표판매신청서를 접수한다.

5) 네고사무원

수출대금을 회수받기 위하여 네고(nego)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입금상태를 확인하며, 원자재금융 차입에 따른 제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으로는 각 사업부로부터 신용장·내국신용장·수출입 허가 시·손익계산서·송장·보험증서·선하증권 등 기타 서류를 접수하여 관련대장에 기록하고 마스터 네고(master nego)또는 로칼 네고(local nego)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한다. 네고대금의 입금을 위해 수출대전에서 우편료, 운임 등 제비용을 공제하고 네고종류에 따른 회사별 네고금액을 계산하여 해당구좌에 입금시킨다. 입금증과 네고금액을 확인하여 입금보고서를 작성한다. 네고별 입금내용을 대장에 기록하고 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을 관련 부서로 송부한다. 각 사업부로부터 사업부 사용인감이 날인된 인감신청서를 접수받아 범인인감을 날인하고 거래은행과 관계기관에 등록한다. 원자재금융차입에 대한 상환일은 점검하여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고 금융이자를 환수 받는다.

6) 금융기관서류사무원

외자구매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부터 선적서류 압수과정까지 발생하는 은행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으로는 외자구매보고서 및 주문서를 구매담당부서로부터 접수하여 검토하고 예상비용을 결제 받아 자금부서에서 인수한다. 개설은행에서 수입인증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에 따르는 담보금 및 수수료를 지급한다. 신용장개설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도착통지를 받으면 제비용을 청산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여 구매담당자에게 인계한다. 구매담당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접수하고 하자사항 유·무를 확인한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한 후 관계비용을 정리하고 외화보증서류를 발급받는다.

7) 관세환급사무원

수출용 수입원자재 통관 시 관세를 수출완료 후 환급받기 위해 관세 환급 계획을 입안하고, 이의 집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으로는 통관·수출부서로부터 수출허가서 및 내국신용장을 접수

하여 소요량 담당에게 소요량증면발급을 의뢰한다. 소요량 담당으로부터 환급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환급신청기관별·신청자명의별·수출제품별로 분류하여 외자 및 구대부서로부터 직수입명장·분할수입명장을 인수하여 수입원자재대장에 기장한다. 수출허가서·소요량증명·신용장사에 명시된 수출품 실수급격 일치여부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소견표를 작성하고 수입원자재대장 중에 수입허가서와 소요량증명을 연결시켜 관세 환급 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에 사용할 수입허가서의 원자재처리 수량과 세액을 공제한다. 환급서류를 취합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기관에 접수시켜 접수번호 및 인자를 각 서류에 표시하여 결제를 받고, 환급결제가 완료되면 서류를 복사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원본은 인수한다. 환급신청세관에 대한 입금 증을 교부받아 자금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공장별·관리번호별로 배분하여 입금 정리하고, 공장회계부서에 송부한다. 환급이 완료되면 기타 관련 장부를 정리한다.

8) 외화납출원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의 매입과 외화소지 적법자에 대한 외국통화의 매도 및 외국발행 외화표시 송금수표·개인당좌수표·외화수표의 추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매입의뢰를 접수하여 위·변조, 오손권 및 제한통화권 등을 확인하여 외국환 매각신청서를 교부하고 필요사항을 개제한다. 환율은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산출하고 매각신청서를 출금전표로 하여 원화를 지급한다. 회화매도를 위하여 무역외 지급인증을 필한 전표가 작성·회부되어오면 전표에 의해 대응원화를 수집하고 수납된 전표는 관계외국통화원장에 기재하고 외화를 지급한다. 외화는 내일 시재명세장에 의거하여 권 중 별로 확인·기록한다. 고객으로부터 여행자수표의 매입의뢰 또는 외화수표를 매입하면 수표를 점검하고 본인을 확인한다. 채권보전을 위하여 추심 전 매입분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여신에 준하여 취급하고 대전을 지급한다. 여행자수표 및 외환매입은 수표를 모아 환배서를 하고 환거래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한다. 환거래은행 또는 지급은행으로부터 추심수표 입금통지가 오면 고객에 통지하여 외국환 매각신청서에 의한 대전을 지급한다. 무역외 및 자본거래 수입명세서를 보고하고 환전상점포의 환전실적을 보고한다.

9) 내국신용장 사무원

내국 신용장매입·추심 등의 내국신용장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으로는 내국신용장의 매입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신용장원본·환어음·물품송장·영수증 등을 검토·확인하고 해당 신용장의 결제자금 입금여부를 확인한다. 내국신용의 추심을 위하여 타행 발행분은 추심의뢰서·신용장원본·환어음·물품인수증·영수증 등을 접수받아 추심어음기입장에 기장하고 내국신용장 어음 교환소에 지급하여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하고 당행 개설분을 수입하여 결제 받는다. 추심회부 후 3일 이내에 부도통지가 없으면 내국신용장용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행은행 앞으로 교환 회부하여 대금을 추심한다.

10) 사무원감독직종(수출사무 관리자)

수출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시장 정보를 입수하고 지역별 수출 전략을 구상하며 소속사무원을 지도감독 하여 해외시장개척 및 바이어를 확보하여 계약에 의한 수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실적을 분석·평가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으로는 경영목표 및 상업부 목표관리에 의해 효율적인 수출판매를 위한 연간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수출계획 및 전략에 따라 회사제품 및 신제품 계획을 바이어에게 소개하여 주문을 받도록 한다. 수출 완료 후 수출 결과를 정리 분석하여 계획된 목표와 비교·검토하고 미달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관리자(사무 및 유사직)란에 기술된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11) 사무원감독직종(수출사무원)

고객의 초청에 의해서 수출환어음 매입에 따른 신용장 및 선적서류를 심사하며 매입대금지급으로부터 회수 시까지 제과정의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관리 한다.

작업절차 및 내용으로는 선적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수해자로부터 선적서류 및 관계서류를 접수하여 선적서류 송부장에 접수 처리하고 관계대장에 기장한다. 선적서류 송부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수료의 청구여부 및 어음기일 등을 확인하고 일람물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으로 구분한다.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를 확인 검토하고 신용장 환어음 등의 서류를 심사한다. 매입 및 추심방법을 결정하고 선적서류는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 앞으로 송부하여 매입대전을 추심한다. 상해은행으로부터 신용조회가 도착되면 네고(nego)기입장에 표시하고 매입부터 수반된 모든 보고서의 작성, 발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선적서류 매입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한부 매입어음의 기입장에 매입명세를 기록하고 어음의 인수여부 및 만기일을 관리한다. 신용장이 당행 앞으로 내도되면 개설은행의 서명을 대저하고 신용장 내용을 검토하여 수출신용장 내도통지기입장에 기입하고 수출신용장 수혜자를 확인하고 수출신용장, 수령장을 청구한다.

제2절 무역관련 인력양성 현황

1. 정부 기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역인력양성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글로벌무역인턴십 과정이 있다. GTEP 사업은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필요 역량을 갖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중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 집중을 통해 각 지역의 언어, 상관습, 법령 및 무역실무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전문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TI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07년에 전국 19개 대학이 1기로 시작하여 2016년 현재 10기를 운영 중에 있다. 전국 24개 대학교(<표 III-3>참조)에서 매 기수 별 700여명이 선발되며 기간은 매년 1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15개월의 기간 동안 무역기본교육, 심화교육, 현장실무컨설팅교육, 산학협력 중소기업 현장실습 등 총 15학점 4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³⁾.

글로벌무역인턴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해외 경험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무역실무 및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갖춘 청년무역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주 80시간의 국내교육

3) 제주대학교는 2012년 7월1일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현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6기에 선발되어 2016년 현재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을 이수하고 5개월간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스웨덴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종합상사, 전자, 화학, 섬유, 중공업, 화장품 관련 무역관련업체에 파견해 연수를 진행한다.

<표 III-3> GTEP사업단 선발현황

지역구분	대학 수	대학
서울	2	건국대(중화권), 숭실대(유럽)
수도권	5	강원대(동남아), 단국대(중화권, 인하대(중앙아), 한국산기대(중남미), 한국외대(용인/동남아)
충청권	5	남서울대(중화권), 순천향대(동남아), 청주대(중남미), 충북대(인도), 한남대(동남아)
전라권	5	광주대(중화권), 목포대(중화권), 전북대(중화권), 제주대(중화권), 호원대(아프리카)
경상권	7	계명대(중화권), 동국대(경주/중앙아), 신라대(동남아), 영남대(중동), 영산대(인도), 인제대(중앙아), 해양대(유럽)
합계	24	

자료 : GTEP홈페이지 (<http://www.gtep.or.kr/>)

주: 서울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총 6개 지역에서 24개 대학이 선발되었음.
(서울/수도권 6개(25%), 지방권 18개(75%)의 비율)

2. 민간 및 기타 기관

민간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아카데미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카데미가 있다. 무역아카데미는 무역, 국제비즈니스 전문교육기관으로 1965년 청와대 수출진흥 확대회의 결의에 따라 수출입국을 선도할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무역실무, 마케팅, 외환, Biz외국어 등 4개 분야의 단기연수와, 무역 및 ICT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무역마스터과정’, ‘SMART Cloud마스터과정’, ‘글로벌물류서비스 최고경영자과정(GLMP)’, ‘섬유 수출전문가과정’, ‘자동차 부품 수출전문가과정’, ‘전자무역물류 마스터과정’, ‘KITA 미래무역포럼’ 등의 장기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무역마스터’과정은 대학교 졸업자(예정자)를 대상으로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외국어 및 직무소양 등 수준 높은 교육으로 글로벌화된 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무역인력 양성 과정이다. 이 과정은 7개월간 1,300시간의 강도 높은 집중 교육을 실시하며, 무역기본지식을 시작으로 무역실전심화교육, 무역마케팅, 외환/재무교육, OA교육, 비즈니스외국어, 인성개발 및 특강 등의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KOTRA 아카데미는 2003년에 출범하여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주재원 사관학교 과정’, ‘외국인투자유치 교육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FTA활용 업종별 교육과정’, ‘해외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물류협회에서는 총 13개의 커리큘럼으로 ‘물류전문가 양성과정’이, 한국물류관리사협회에서는 총 9개의 물류관련 교육이, 한국국제물류협회에서는 총 3개의 분야(직능과정, IATA DIPLOMA, 기타)에 총 12개의 교육이 개설되어 있다.

3. 제주도 무역관련 지원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활력 제고’라는 목표로 2021년까지 중소기업 미래비전 실현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표<Ⅲ-4>와 같이 다양한 수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표 Ⅲ-4>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분야 시책

사업명	내용
1.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 수출 상품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상품(기업)을 발굴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수출상품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제주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제주지역의 수출을 선도하여 고용 창출 등 소득증대 기여
2. 중국 수출통관 컨설팅 지원사업	- 중국 통관 관련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도내 수출기업 애로점 해소 및 중국시장 진출 기반 조성 - 중국 현지 통관에 정통한 컨설팅 회사와 공동협력 및 통관업무 대행 체계 구축
3.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구축, 제주상품 해외 바이어 홍보 등 온라인 수출지원 체계 구축으로 수출확대 기반 조성
4.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 중국 현지 거점 운영을 통해 제주상품 전시홍보,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중국 내 전시회, 박람회, 물산전 참가를 통한 신규바이어 유치 및 유통채널 확보로 수출증대 도모 - 제주상품 수출상담, 전시홍보 및 투자, 관광홍보 등 종합기능 수행
5. 수출 One-Stop 서비스	- 수출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스 지원	- 수출 기업의 상품소개, 통관, 사후관리 등 수출 전 과정 지원 강화
6.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 추진	-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환경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우수한 제주 제품과 제주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 수출 마케팅 확대 추진
7.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 수출기업의 통·번역애로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 지원으로 도내 수출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 - 수출 One-Stop 지원사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 증대
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및 바이어 초청 지원	- 기업맞춤형 해외전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내실화를 통한 수출액 증대 - 기업의 신상품 소개, 제품의 생산 공정 소개 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바이어를 초청하여 제품의 인지도 향상으로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
9.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	- KOTRA KBC(Korea Business Center, 무역관)를 해외지사로 활용, 해외마케팅 전문인력과 비용부담 없이 수출시장 개척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 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10. 수출기업 역량강화 사업	- 수출 성공 기업인 초청 강연 및 워크숍, 수출 성공기업 벤치마킹 등 도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기초 역량 강화로 수출증대의 발판 마련
11. 1차 산품 수출 선도 조직	-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수출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 道 특성에 맞는 우수 수출조직 육성으로 농수산식품의 수출 역량 강화
12.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물 제작사업	- 제주 특산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함으로써 해외 마케팅 효과 제고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무역에 있어 해당국가의 통관에 해외규격인증은 필수 -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자금 부족 등 영세 수출기업의 해외 규격 인증획득비용의 일부지원으로 제주기업 제품의 수출 촉진
14.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진흥을 위한 공격적 해외마케팅 강화 등에 따른 신규 수출기업 증가 등으로 수출보험 수요급증이 전망됨에 따라 지역 중소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해소, 환율변동 등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수출활동 지원
15. 수출상품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수출상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수출상품의 가치상승 및 수출확대 도모

16. BUY-JEJU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상품의 일본 현지 내 인지도가 미비하므로 일본 내 전시 박람회, 물산전, 판촉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을 수시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단발성 행사나 마케팅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 전개
17.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유망시장의 잠재력 있는 바이어를 발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주상품의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수출확대 도모
18. aT 연계 1차산품 해외시장 판촉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공조로 해외시장 개척활동 효율성 증진 - 해외 조직망을 갖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연계·우수 유통마켓 판촉행사 추진으로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19. 1차산품 해외박람회 한국관 참가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축산 가공식품 대상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공동참가 지원을 통한 상품 홍보 및 수출상담 기회 제공
20.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및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상품 홍보 및 수출상담회 개최하여 수출증대 도모
21. 2016년 세계한상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상대회를 통해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기업들과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시장 정보 교류 및 수출시장 확대 - 한생대회 참가자들에게 제주의 청정환경 및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22. 원산지 확인서 제2차 확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정합성을 확인 검토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서응근 제고시켜 수출을 원활하게 추진
23. 수출 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출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용 홍보물 제작을 통해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수출 확대 기여
24. 수출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입국가에서 요구하는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을 통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수출 확대 기여
25. 수출기업 국제특송(EMS) 비용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바이어와 수출 거래 협의과정에서 상품샘플 요구 시 발송에 따른 국제특송 발송비용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국가의 다변화를 지원
26.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전시회 참가경비 지원
27. 국제 자매교류도시와의 무역활동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자매교류도시에 있는 바이어의 사업소재지를 직접 방문하고 상담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 상담기회 마련으로 수출기회 촉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6, 201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4. 제주지역 대학교육기관

2016년 제주지역 대학은 4년제 대학교 총 2개, 전문대 총 3개가 있으며, 이중 무역관련학과⁴⁾를 포함하고 있는 학교는 대학원 2개, 대학교 1개, 전문대 1개 가 있다. 대학원의 무역학 과정 개설현황으로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일반대학원 : 무역학과, 경영대학원 : 무역학과)이 있다. 무역관련 설치 4년제 대학교는 제주대학교가 있으며, 전문대는 제주한라대학이 있다.

1)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는 학부에 무역학과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세부전공으로는 국제무역론, 국제무역관습론, 무역영어, 국제지역경제론, FTA와 제주경제, 수출입현장실무, 국제경영학, 전자무역론 등 이 있다. 무역학과에서는 WTO출범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세계화·정보화의 추세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세계시장의 글로벌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국가적 수요에 부응한 국제무역·통상, 국제경영, 무역실무분야에서의 학문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국제무역현상에 대한 이해, 학문적 연구, 외국어 교육의 강화, 실천적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으로 진취적으로 유능한 전문 국제 무역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1980년에 신설되었으며 1990년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1997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2004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2)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는 기존 2년제 전문대학에서 2015년 최초 4년제 학과인 '중국경제 무역학과'를 신설하였다. 중국어 습득과 함께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중국법 과목 이수 등 관련 전공 교과목 수업은 물론, 중국 유학, 연수, 기업 인턴을 포함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내 중국기업,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비롯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지구 곳곳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4)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을 기본으로 이와 유사한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는 과를 말한다.

제 4 장 제주지역 무역관련업 실태조사를 통한 무역인력 양성방안

제1절 제주지역 무역관련업체 고용실태조사

1. 조사의 설계

제주지역 기업체(무역관련업 : 무역, 유통, 제조 등)의 인력채용 실태분석을 위하여 모집단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무역 및 제조업체는 한국무역협회에 등록된 제주지역 내 사무소를 둔 사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표본수는 29개사로 하였고 조사기간은<표 IV-1> 과 같다.

<표 IV-1> 조사기간

조사단계	기간
설문지 작성	4월 20일 ~ 4월 30일
대상자 리쿠르트 및 실사	5월 1일 ~ 5월 16일
데이터처리	5월 10일 ~ 5월 17일

2. 조사분석의 결과

1) 업체의 일반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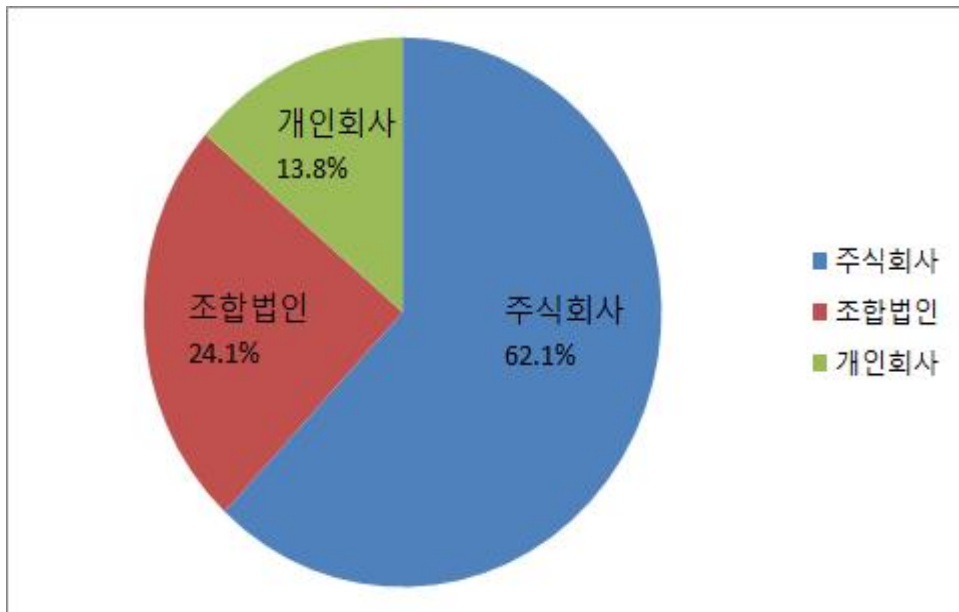
우편 발송 및 실사를 통한 제주지역 무역관련업체를 대상으로 50부를 발송하였으며, 이중 40부가 회수되었고, 답안에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29개의 설문조사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가 18개로 62.1%이었으며, 조합법인이 7개로 24.1%, 개인회사가 4개로 13.8%이었다. 사업분야로는 제품개발 및 제품생산, 판매를 하는 업체가 23개로 79.3%이었으며, 제품생산 및 제품판매가 4개로 13.8%, 제품개발 및 제품생산, 제품판매가 각각 1개로 3.4%이었다. 종업원 규모로는 10인 미만의 업체가 20개로 69.0%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10이하의 소기업에서 제품개발과 생산, 판매까지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 맡은 업무가 다양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2> 기업체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기업형태	주식회사	18	62.1
	합자회사	0	0
	조합법인	7	24.1
	개인회사	4	13.8
	특별법인	0	0
사업분야	제품판매	1	3.4
	제품개발 및 제품생산	1	3.4
	제품생산 및 제품 판매	4	13.8
	제품개발 및 제품생산, 제품판매	23	79.3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20	69.0
	10인~20인	4	13.8
	20인~50인	2	6.9
	50인 이상	3	10.3

[그림 IV-1] 기업형태



2) 인력 부족 현황 및 확보 애로 요인

조사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24개 업체로 82.8%에 해당되었으며,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는 5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이 중 무역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62.0%) 연구·기술직(37.9%), 사무·관리직과 단순노무직(24.1%), 판매관리직(13.8%) 순으로 인력부족 현황이 조사되었다.

이 중 무역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력확보 애로요인과 극복 대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는 11개 업체로 37.9%에 해당되었으며, 도내에 해당인력이 부재해서 라고 응답한 6개 업체(20.7%),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개 업체로 10.3%에 해당하였다.

<표 IV-3> 인력 부족현황

구분	빈도	백분율
인력이 부족함	24	82.8
부족하지 않음	5	17.2

<표 IV-4> 직종별 부족현황

구분	빈도	백분율
사무·관리직	7	24.1
무역관련 전문가	18	62.0
연구·기술직	11	37.9
단순노무직	7	24.0
판매관리직	4	13.8

<표 IV-5> 무역인력 확보 애로요인

구분	빈도	백분율
도내에 해당 인력 부재	6	20.7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3	10.3
임금조건의 불일치	11	37.9
회사 소재지의 지역 여건	0	0
기타	0	0

이와 같은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3개 업체로 44.8%에 해당되었다. 또한 도외 무역전문인력을 스카우트 하겠다는 응답도 4개 업체로 13.8%에 해당되었다. 이는 제주도 내에 기업들이 임금조건의 불일치로 인하여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 무역인력부족 현상 극복 대책

구분	빈도	백분율
무역관련 교육 위탁, 실시	0	0
임직원 복지 증진	13	44.8
도외 무역전문인력 스카우트	4	13.8
회사 소재지 변경	0	0
기타	3	10.3

3) 교육 훈련 현황

인력 채용인력의 교육 및 훈련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12개 41.4%로 가장 높았고, 실시할 경우 현장사내교육(OJT)라고 응답한 경우는 8개 27.6%, 교육전문기관 위탁의 경우 6개 20.7%, 외부전문가 초빙이 3개 10.3%로 조사되었다.

교육훈련 시 고려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15개 51.7%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이라는 응답이 5개

17.2%, 교육훈련 시간이란 응답이 1개 3.4%로 조사되었다.

교육훈련 미 실시 업체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교육훈련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개 31.0%로 가장 높았고, 교육훈련에 대한 시간 투자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제주지역 업체가 비용적·시간적으로 교육훈련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영세성을 보여준다.

<표 IV-7>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현장사내교육(OJT)	8	27.6
외부전문가 초빙	3	10.3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6	20.7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0	0
실시하지 않음	12	41.4

<표 IV-8> 교육훈련 시 고려요인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훈련 시간	1	3.4
교육·훈련 비용	5	17.2
교육·훈련기관의 지명도	0	0
교육·훈련 프로그램	15	51.7
기타	0	0

<표 IV-9> 교육훈련 애로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훈련 비용의 부담	9	31.0
교육·훈련 시간 투자 부담	1	8.3
교육·훈련기관의 부재	0	0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 못 느낌	0	0
기타	2	6.9

4) 신규인력 채용 시 고려요인 및 제주지역 대학생 채용계획

신규 인력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97.1%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4.69점), 개인인성(4.66점), 대인관계능력(4.59점), 어학능력(4.14점)순으로 높았다. 반면 외모는 채용 시 가장 고려되지 않는 요인(2.34점)으로 나타났으며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학력과 학과추천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10> 신규 채용 시 고려요인

항목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학력	0 (0%)	7 (24.1%)	16 (55.2%)	6 (20.7%)	0 (0%)
어학능력	0 (0%)	1 (3.4%)	5 (17.2%)	12 (41.4%)	11 (37.9%)
자격증소지	0 (0%)	5 (17.2%)	14 (48.3%)	7 (24.1%)	3 (10.3%)
전공분야	0 (0%)	2 (6.9%)	12 (41.4%)	10 (34.5%)	5 (17.2%)
업무수행능력	0 (0%)	0 (0%)	1 (3.4%)	7 (24.1%)	21 (72.4%)
학과추천	2 (6.9%)	6 (20.7%)	13 (44.8%)	7 (24.1%)	1 (3.4%)
개인인성	0 (0%)	1 (3.4%)	0 (0%)	7 (24.1%)	21 (72.4%)
대인관계능력	0 (0%)	0 (0%)	2 (6.9%)	8 (27.6%)	19 (65.5%)
외모	6 (20.7%)	9 (31.0%)	12 (41.4%)	2 (6.9%)	0 (0%)

<표 IV-11> 신규 채용 시 고려요인(평균)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학력	2.97	.680
어학능력	4.14	.833
자격증소지	3.28	.882
진공분야	3.62	.862
업무수행능력	4.69	.541
학과추천	2.97	.944
개인인성	4.66	.670
대인관계능력	4.59	.628
외모	2.34	.897

<표 IV-12> 제주지역 대학생 채용계획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원함	10	34.5
원함	16	55.2
보통	3	10.3
원하지 않음	0	0
전혀 원하지 않음	0	0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채용을 원한다”와 “매우 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개 89.7%였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개 10.3%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 업체 대다수가 제주대학교 대학생들을 채용하기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

학교 이론교육이 실무응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58.6%

가 보통수준으로 응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거의 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우는 24.1%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의 이론교육이 실제 회사에서 실무투입 시 적절하게 응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13> 학교 이론교육의 실무 응용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적합하게 응용	1	3.4
기대수준에 비해 적합하게 응용	4	13.8
보통	17	58.6
거의 응용하지 못함	7	24.1
전혀 응용하지 못함	0	0

업체에서 무역 업무를 처리 시 가장 밀접하게 업무협조를 하는 기관은 무엇이나 는 물음에 대해서 21개 업체 72.4%가 무역유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라고 응 답하였으며, 운송업체는 6개 20.7% 제주특별자치도청은 2개 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4> 무역업무 처리 시 밀접기관

구분	빈도	백분율
제주특별자치도청	2	6.9
무역유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1	72.4
운송업체	6	20.7
외국환은행	0	0
세관(항만)	0	0
기타	0	0

종업원들이 능력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훈련 방안에 대해 직무훈련이 6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해외파견이 17.2%로 나타났다. 직무훈련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종업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15> 종업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대표적 교육훈련 방안

구분	빈도	백분율
직무훈련	20	69.0
기술연수교육	0	0
해외파견	5	17.2
전문가 초청 세미나	3	10.3
기타	1	3.4

수출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필요와 매우필요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6%로 전혀 불필요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3.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IV-16> 수출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13	44.8
필요하다	15	51.7
보통이다	1	3.4
불필요하다	0	0
전혀 불필요하다	0	0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자급에 대해 필요와 매우필요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3.1%로 전혀 불필요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6.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주지역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매우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기업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17>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자금지원의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19	65.5
필요하다	8	27.6
보통이다	2	6.9
불필요하다	0	0
전혀 불필요하다	0	0

고용유지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와 매우 필요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4%이며 보통과 불필요 하다는 27.5%로 나타났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영세성으로 자체 교육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18> 고용유지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의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13	44.8
필요하다	8	27.6
보통이다	7	24.1
불필요하다	1	3.4
전혀 불필요하다	0	0

<표 IV-19> 신규채용 시 기초소양 중요도 1순위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외국어 실력	20	69.0	★
무역실무와 법규	9	31.0	
일반상식	0	0	
정보화기기 사용능력	0	0	

직원 신규 채용 시 기초 소양의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중 69.0%에서 외국어 실력에 대한 소양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1%에서 무역실무와 법규이해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0>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능력 1순위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영어	16	55.2	★
일본어	0	0	
중국어	13	44.8	
기타	0	0	

<표 IV-21>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활용분야 1순위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회화능력	20	69.0	★
독해능력	4	13.8	
무역서류작성	5	17.2	
기타	0	0	

직무 수행 시 필요로 하는 외국어는 영어로 55.2%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중국어가 필요하다고 응답(44.8%)하고 있다. 외국어 활용분야로는 회화 능력이 가장 중

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69.0%), 무역서류 작성 능력(17.2%)과 독해 능력(13.8%) 역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2> 졸업생 재교육과정 제도의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동의함	6	20.7
동의함	19	65.5
보통	3	10.3
동의하지 않음	1	3.4
전혀 동의하지 않음	0	0

졸업생 재교육과정 제도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는 86.2%에 해당되었으며 3.4%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시간적·비용적 이유로 수행하기 힘든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기업의 해외시장 활동 현황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모두를 목표시장으로 활동하는 기업체가 17개 58.6%로 가장 많았고, 해외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는 11개 37.9%, 국내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조사되지 않았다. 현재 수출실적이 미미하지만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동시에 목표시장으로 잡은 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전문 인력과 과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3> 목표시장

구분	빈도	백분율
국내시장	0	0
해외시장	11	37.9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	17	58.6
기타	1	3.4

<표 IV-24> 해외활동 방식

구분	빈도	백분율
OEM 수출	4	13.8
OBM 수출	1	3.4
합작 투자	1	3.4
단독 투자	19	65.5
프랜차이징	1	3.4
기타	3	10.3

제주지역 수출업체의 해외활동 방식은 대부분이 단독투자로 65.5%를 활용하고 있으며, OEM수출 13.8%, 기타 10.3%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해외활동은 간접수출에서부터 직접수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기업의 규모 및 상황에 맞춘 단계별 수출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해외활동 방식으로 직접투자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역인력양성이 요구되어 진다.

<표 IV-25> 경쟁력 결정요인

구분	빈도	백분율
가격경쟁력	16	32.7%
시장확보	22	44.9%
기술력	4	8.2%
제품다각화	6	12.2%
기타	1	2.0%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시장확보가 44.9%로 가장 많았고, 가격경쟁력이 32.7%, 제품 다각화가 12.2%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중 시장 확보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기업에서는 시장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출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

다고 볼 수 있다.

<표 IV-26> 수출활동 시 우선과제

구분	빈도	백분율
가격경쟁력 확보	14	26.4%
기술경쟁력 확보	5	9.4%
고급전문인력 확보	15	28.3%
원활한 자금조달	2	3.8%
생산설비의 확충 및 현대화	4	7.5%
판매망 확충	12	22.6%
기타	1	1.9%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활동 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는 고급 전문인력 확보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격경쟁력 확보(26.4%), 판매망 확충이(22.6%)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서 수출활동을 하기 위한 고급 전문인력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7> 수출활동 성과 결정요인

구분	빈도	백분율
원재료(반제품)가격상승	5	13.2%
제품 가격상승	7	18.4%
시장 수요감소	15	39.5%
노사관계 변화	10	26.3%
기타	1	2.6%

기업의 수출활동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는 시장 수요감소가 39.5%로 가장 높았고, 노사관계 변화가 26.3%,제품 가격상승이 18.4%로 나타났다.

<표 IV-28> 수출활동 시 애로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신제품 개발	2	4.9%
판로확보	16	39.0%
전문인력확보 및 종업원 교육	18	43.9%
최신기술 및 정보획득	1	2.4%
자금조달	2	4.9%
기타	2	4.9%

제주지역 수출업체가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확보 및 종업원 교육이 43.9%, 다음으로 판로확보가 39.0%, 자금조달 및 신제품 개발이 4.9%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활동 시 애로사항으로 전문 인력 및 종업원 훈련 등 수출전문 인력과 관련된 사항이 43.9%으로 높게 나타나 전문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9> 수출경쟁우위 결정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가격 경쟁력	2.79	1.048
종업원들의 영업 및 판촉능력	2.76	.830
효율적 유통체계	2.66	.897
제품 품질 및 서비스	1.66	.553
자금조달 및 운용력	2.17	.711
효율적 생산관리 능력	2.10	.772
특허권과 신기술 보유	2.28	.960
제품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2.97	1.017
정보수집 및 시장예측 능력	2.86	.875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2.03	.680

제주지역 기업의 수출경쟁우위를 결정하는 10가지 요인에 대하여 5점척도를 활용해 우위요인과 열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정보수집 및 시장예측 능력, 가격경쟁력이 평균이상의 절대적인 우위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인 생산관리 능력,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제품 품질 및 서비스가 절대적인 열위요인으로 나타났다⁵⁾.

7) 수출마케팅 관련 사항

<표 IV-30> 제품의 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소비재	25	86.2
산업재중 소비재	0	0
산업재 중 부품(반제품)	1	3.4
산업재 중 완제품	3	10.3

제주지역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형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비재가 86.2%로 가장 높았고, 산업재중 완제품이 10.3%, 산업재 중 부품 내지 반제품 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대상 물품의 86.2%가 소비재로서 최종소비자의 구매형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업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31>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제품의 국제표준화	0	0
제품의 가격경쟁력	8	13.8
브랜드 이미지	16	27.6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2	3.4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	6	10.3
자금조달	3	5.2
전문인력 조달	14	24.1
수출행정절차	1	1.7
해외시장정보 부족	7	12.1
기타	1	1.7

5) 전체 총 평균은 2.42점으로 평균이상 항목 중 최상위 3항목은 절대우위요소로, 최하위 3개 항목은 절대열위 요소로 파악하였다.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은 브랜드 이미지가 27.6%로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조달이 24.1%,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13.8%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은 수출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IV-32> 수출 마케팅 이용 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전시회 참가	23	50.0
시장개척단 참가	13	28.3
인터넷 마케팅	6	13.0
상품홍보지 광고	0	0
마케팅 대행사 활용	1	2.2
카달로그 배포	0	0
기타	3	6.5

수출 마케팅을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전시회 참가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시장개척단 참가 13.0%, 인터넷 마케팅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수출기업체는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참가, 인터넷 마케팅 등 직접적인 수출 마케팅 방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수출전문인력을 양성과정에 이러한 마케팅 방법을 이용 가능한 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표 IV-33> 수출 마케팅 활동 시 중점분야

구분	빈도	백분율
영업활동	14	23.7%
유통망 구축정비	5	8.5%
바이어 관리	15	25.4%
광고활동	6	10.2%
제품이미지 홍보	15	25.4%
제품개발 정보수집	3	5.1%
애프터 서비스	1	1.7%
기타	0	0

수출 마케팅 활동 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바이어 관리와 제품이미지 홍보가 2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업활동 23.7%, 광고활동 26.8%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마케팅 활동 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바이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를 요구하는 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출전문 인력을 양성과정을 설계 시에 해외바이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34> 수출시장 확보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현지유통망과의 판매제휴	15	42.9%
바이어에 일임	13	37.1%
국내기업 해외유통망 공동이용	3	8.6%
현지직매장 판매회사 설립	1	2.9%
기타	3	8.6%

수출 마케팅을 위하여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현지 유통망과의 판매제휴 (42.9%)와 바이어에 일임(37.1%)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해외유통망 공동이용(8.6%)의 방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유통망과의 판매제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통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IV-35> 수출관련 필요정보

구분	빈도	백분율
바이어 리스트	19	45.2%
시장수요 동향	17	40.5%
경쟁기업 동향	3	7.1%
상품 정보	3	7.1%
기술 및 디자인	0	0
기타	0	0

수출 마케팅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관련 정보는 바이어 리스트가 4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장수요 동향이 40.5%, 경쟁기업 동향 과 상품 정보가 7.1%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수출활동 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해외 시장과 관련된 정보가 85.7%를 차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36>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구분	빈도	백분율
해외전시회 지원확대	16	40.0%
수출상품 해외홍보지원	8	20.0%
해외유통망 확보지원	9	22.5%
해외시장 정보제공	6	15.0%
기타	1	2.5%

수출 마케팅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지원시책은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지원 확대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유통망 확보 지원(22.5%)과 수출상품 해외홍보 지원(20.0%)로 나타났다. 제주도 수출기업들은 해외활동에 필요한 수출마케팅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외전시회, 상품 홍보지원 등의 수출 활동은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실질적인 활동은 기업내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제주지역대학생 취업의식조사

1. 조사의 설계

제주지역 대학생의 취업의식 조사분석에서는 2008년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 서 수행(‘인천지역 무역관련업 고용실태조사’)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수정하여 조사

를 진행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모집 대상을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학생들로 한정하였다. 대학생 취업의식조사방법은 저자가 면접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다음의 <표 IV-37>과 같다.

<표 IV-37> 조사기간

조사단계	기간
설문지 작성	4월 20일 ~ 4월 30일
대상자 리쿠르트 및 실사	5월 1일 ~ 5월 16일
데이터처리	5월 10일 ~ 5월 17일

2. 조사분석의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조사결과 일반적 사항은 <표 IV-38>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74명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45.9%이며 여학생이 54.1%로 여학생의 응답률이 높았다. 학년분포는 2학년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28.4%, 3학년 27.0% 순이었다. 연령은 24살이 25.7%로 가장 많았으며 24살과 25살이 20.3%, 21살이 18.9%, 22살이 14.9%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는 무역학과 학생들이 7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경영정보학과와 경영학과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34	45.9
	여성	40	54.1
학년	1학년	0	0
	2학년	33	44.6
	3학년	20	27.0
	4학년	21	28.4
연령	20살	0	0
	21살	14	18.9
	22살	11	14.9
	23살	15	20.3
	24살	19	25.7
	25살 이상	15	20.3
전공	무역학과	71	95.9
	경제학과	0	0
	회계학과	0	0
	경영학과	1	1
	경영정보학과	2	2
	관광경영학과	0	0
	관광개발학과	0	0

2) 대상자의 전공 관련 사항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대학생이 생각하는 전공과 관련된 동기 및 만족도를 와 같이 확인한 결과<표 IV-39>, 전공을 선택한 동기는 중 가장 많은 것은 성적을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응답이(36.5%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부모님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했다는 응답은 4.1%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전공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이(32.4%) 두 번째를 보여 자신의 전공분야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이 취업을 위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60.8%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이(32.4%)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전공분야 소지 자격증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1명으로(82.4%)로 가장 많았으며, 1개 소지하고 있다는 경우는 10명(13.5%)이 두 번째로 많았고, 3개라고 대답한 경우는 1명(1.4%)이 응답하였다.

<표 IV-39> 조사대상자의 전공 관련 사항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전공을 선택한 동기	취업	9	12.2
	성적	29	39.2
	적성과 흥미	27	36.5
	부모님 권유	3	4.1
	기타	6	8.1
전공분야로 취업희망정도	전혀 원하지 않음	3	4.1
	원하지 않음	6	8.1
	보통	32	43.2
	원함	23	31.1
	매우 원함	10	13.5
취업을 위해 전공 만족정도	매우 불만족	1	1.4
	불만족	3	4.1
	보통	45	60.8
	만족	24	32.4
	매우 만족	1	1.4
전공분야 자격증	없음	61	82.4
	1개	10	13.5
	2개	2	2.7
	3개	1	1.4
	4개 이상	0	0

3) 제주지역 업체에 대한 인식정도

제주지역 대학생이 생각하는 제주지역 업체에 대한 인식정도를 확인 한 결과<표 IV-40> 제주지역에 취업을 희망하는 정도는 원한다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 23명(31.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4명(18.9%)이 제주지역에서 취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희망 취업 업종으로는 26명(25.1%)로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았으며 12명(16.2%)의 경우 전문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영업직이나 기술직의 경우는 매우 적은 대학생만이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 분야에 대해 제주지역에서의 취업 기회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4.3%로 대부분이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제주지역 취업정보에 대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는 교내정보망(29.2%)과 민간 인터넷 사이트(29.5%)을 통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과추천을 통하여도 17.6%로 나타났으며, 정부기관 정보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13%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40> 조사대상자의 전공 관련 사항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제주지역 취업희망정도	전혀 원하지 않음	8	10.8
	원하지 않음	14	18.9
	보통	23	31.1
	원함	23	31.1
	매우 원함	6	8.1
취업 희망업종	사무·관리직	26	25.1
	전문직	12	16.2
	영업직	8	10.8
	기술직	0	0
	서비스직	10	15.5
	공무원	10	13.5
	기타	8	10.8
제주지역 내 희망분야의 취업기회 정도	매우 부족함	8	10.8
	부족함	23	31.1
	보통	32	43.2
	많음	8	10.8
	매우 많음	3	4.1
제주지역 취업정보 확인경로	정부기관 정보망	13	17.6
	교내 정보망	22	29.7
	학과추천	13	17.6
	민간 인터넷 사이트	22	29.7
	기타	4	5.4

4) 제주지역 취업의 애로요인 정도

제주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 고려되는 애로요인들을 측정 한 결과<표Ⅳ-41>, 취업정보가 부족하다는 요인이 평균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 요인으로 는 취업기회의 부족(3.88점)이 높았다. 또한 근무조건 부족 등의 요인이 제주지역 취업의 방해요인으로 의미 있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방인식이나 주변의 인식은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취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지방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낮은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기회의 부족이나 근무조건 낮아 대학생들은 제주업체에 취업하기를 꺼려함을 알 수 있다.

<표 Ⅳ-41> 제주지역 취업의 애로요인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취업정보의 부족	3.92	.856
취업기회의 부족	3.88	.827
근무조건 부족	3.74	.892
발전성부족	3.57	1.021
지방인식	3.12	1.072
주변의 인식	2.99	1.104

5) 직업선택 시 중요 요인

제주지역 대학생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을 확인 한 결과<표-42>, 급여의 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었으며(4.36점), 그 다음 직장의 자기적 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려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전공과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가장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명성과 사회적 지위는 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시 애로요인에서 취업기회의 부족, 근무조건 부족과 같은 요인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42> 직업선택 시 중요 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근무시간	3.96	.883
급여수준	4.36	.674
자기적성	4.27	.708
전공 적합성	2.99	1.000
회사의 명성	3.04	.818
사회적 지위	3.23	.853
직장 안정성	4.24	.808
업무자율성	4.11	.694

6) 취업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제주지역 대학생이 취업할 때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요인을 확인 한 결과<표 IV-43>, 업무수행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4.46점)하였으며, 그다음은 대인관계능력이었다. 또한 개인인성과 어학능력 역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학과추천은 2.84점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모, 전공분야와 같은 요인들도 낮게 나타나 대학생들은 외부적인 요인들 보다는 직무수행에 관련된 능력(어학, 대인관계 등)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3> 취업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학력	3.39	.963
어학능력	4.15	.822
자격증소지	3.57	.938
전공분야	2.96	.913
업무수행능력	4.46	.601
학과추천	2.84	.828
개인인성	4.15	.788
대인관계능력	4.19	.734
외모	2.86	1.011

7) 정부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력은행과 같은 취업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냐는 물음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대학생의 응답은 59명(79.7%)이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이용해보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9.5%)이었다. 응답자중 7명(9.5%)이 앞으로 정부의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주대학교 대학생들은 그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44> 정부 취업 프로그램 이용 경험

구분	인원	백분율
이용한적 없다	59	79.7
1회	7	9.5
2회	1	1.4
3회 이상	0	0
이용할 계획임	7	9.5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냐는 물음에 대해 54명(73.0%)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이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7명(9.5%)에 불과해 대학생들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IV-45> 워크넷 이용 경험

구분	인원	백분율
이용한적 없다	54	73.0
1회	6	9.1
2회	4	5.4
3회 이상	3	4.1
이용할 계획임	7	9.5

정부 및 노동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프로그램에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응답한 경우가 39명(52.7%)이었으며 특별히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5명(20.3%)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인력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이용자들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46> 정부 및 노동부의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인원	백분율
있는지 몰랐다	39	52.7
특별히 이용할 필요가 없다	15	20.3
취업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3	4.1
민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4	5.4
취업정보가 부족하다	3	4.1

8) 대학생의 직무가치관

직무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대하여 이상적인 직무를 가정하고 응답을 유도하였다. 즉 이상적인 직무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조건들인지를 응답하였다. 그 결과 협동이 잘되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4.55점)로 응답하였으며, 또한 개인적인 혹은 가족생활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갖는 것, 좋은 물리적 작업환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직무가치관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고용 안정성을 갖는 것	4.14	.833
더 높은 단계의 직무로 상승하는 기회를 갖는 것	3.92	.790
직무에 다양성과 도전성을 갖는 것	3.92	.962
직속상급자와 좋은 관계	4.04	.835
직속상급자가 의사결정시 자신에게 문의하는 것	3.74	.829
협동이 잘되는 사람과 일하는 것	4.55	.553
좋은 물리적 작업환경(조명, 공간)	4.09	.830
개인적인 혹은 가족생활을 위해 충분한 시간	4.45	.685

개인생활 가치관 조사 결과 개인적인 꾸준함과 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4.14점)으로 응답하였으며, 변화와 발전(4.05점), 인내하는 것(4.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에 대한 존경이 3.14점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개인주의적 특성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상사와의 연령차이가 많이 날수록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IV-48> 개인생활 가치관

구분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인 꾸준함과 안정	4.14	.833
인내(끈기)	4.04	.650
절약	3.54	.924
변화와 발전	4.05	.809
도전의식	3.91	.953
전통에 대한 존경	3.14	1.011

제3절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1. 설문조사분석

1) 무역관련업 설문조사

제주지역 기업체의 인력부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24개 82.8%이고, 5개 업체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무역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18개 업체로 62.0%에 해당하였으며, 연구·기술직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11개 업체로 37.9%에 해당하였다. 이외에 사무·관리직, 단순노무직, 판매관리직 순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금조건의 불일치라고 응답한 경우가 11개 업체로 37.9%에 해당되었으며, 도내에 해당 인력이 부재하다는 응답도 6개 업체 20.7%에 해당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개 업체 10.3%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인력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임직원의 복지를 증진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3개 업체 44.8%에 해당되었고, 도외 무역전문인력 스카우트를 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4개 업체 13.8%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 기업체가 인력을 채용하고 싶으나 임금조건의 불일치로 인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 증진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형태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경우 12개 업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사내교육(OJT)라고 응답한 경우는 8개 27.6%로 나타났다. 교육 훈련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경우가 15개 51.7%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 훈련비용에 대한 고려는 6개 업체에서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제주지역 업체의 영세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신규인력 채용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질문한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7.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점수 역시 4.69점으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 주요 고려요인은 개인인성을 꼽았으며 96.4%가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점수는 4.66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평균점수는 4.59점이었다.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출신대학과 학과추천을 꼽았다.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채용을 원한다”와 “매우 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개 89.7%였으며 “원하지 않는다”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제주지역 업체들이 제주도내 대학생들을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금조건의 불일치라는 문제로 인해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 높은 복리후생 조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 대학생들에게 꾸준하고 효과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이론교육이 실무응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58.6%가 보통수준으로 응용하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거의 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1%이었다.

업체에서 무역업무 처리 시 밀접한 업무협조를 하는 기관에 대한 질문에 21개 72.4%가 무역유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라고 응답했다.

종업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대표적 교육훈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무훈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개 69.0%를 보였으며 해외파견 17.2%, 전문가 초청 세미나 10.3%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자금지원의 필요성, 고용유지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와 매우필요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6%, 93.1%, 72.4%,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영세성으로 자체 교육훈련이 불가능하므로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해당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직원 신규 채용 시 기초 소양 중요도를 확인해본 결과, 외국어 실력이 69.0%, 무역실무와 법규가 31.0%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업무 수행 시 필요로 하는 외국어는 영어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55.2%, 중국어가 44.8%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 능력 중에서 회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69.0%), 무역서류 작성 능력(17.2%) 역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졸업생 재교육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응답이 86.2%로 필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다.

기업의 해외목표시장은 국내 및 해외시장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는 응답이 17개 58.6%로 나타났으며. 주요 해외활동 방법에는 단독 투자가 65.5%로 가장 높았고, OEM수출이 13.8%로 응답하였다.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시장 확보가 44.9%로 응답하였고, 수출활동 시 우선 과제는 고급전문인력 확보가 28.3%, 수출활동 성과 결정요인으로는 시장 수요감소(39.5%)의 응답을 보였으며 이는 관련 수출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 기업의 수출경쟁우위 요인에는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정보수집 및 시장예측 능력 등이 평균이상의 절대적인 우위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인 생산관리 능력,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등이 절대적인 열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형태는 소비재가 86.2%로 가장 높았으며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2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전문인력 조달 24.1%, 제품의 가격경쟁력 13.8%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마케팅 이용방법에는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참가 등 직접적인 수출마케팅 방법을 63.0%가 이용하고 있으며, 수출 마케팅 활동 시 바이어 관리와 제품이미지 향

보에 중점을 둔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출마케팅을 위하여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방법에 현지유통망과의 판매제휴라는 응답이 42.9%로, 수출관련 필요정보는 바이어 리스트확보(45.2%)라고 응답하여 제주지역 업체는 이를 수행 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고 해외유통망 확보, 수출상품 해외홍보 순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 취업의식 조사

제주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정도를 확인 한 결과, 원한다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 23명(31.1%)로 가장 많았다. 에 비해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4명(18.9%)이 제주지역에서 취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희망 취업 업종으로는 257명(35.6%)로 사무, 관리직이 가장 많았으며 253명(35.0%)의 경우 공무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술직이나 영업직의 경우는 매우 적은 대학생만이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제주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 고려되는 애로요인은 취업정보의 부족이라는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 요인으로는 취업기회의 부족이 높았다. 또한 근무조건 부족 등의 요인이 제주지역 취업의 방해요인으로 의미 있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변의 인식이나 지방인식은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취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자리나, 복리후생, 근무조건 낮아 대학생들은 제주지역 업체에 대해 취업하기를 꺼려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급여의 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 또한 자기 적성과 직장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려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전공과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가장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선호하는 결과로 보이며, 이 결과는 구직을 하는데 있어서 청년실업의 커다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구직자는 눈높이를 낮추고 수요자인 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높이는 협의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대학생이 취업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은 무엇인지를 물어보

는 질문에 업무수행능력(4.46점)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응답하였으며, 또한 대인관계 능력(4.19점)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직무수행에 관련된 개인적인 능력을 보다 중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를 넘는 79.7%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취업 시 이상적인 직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조건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에는 협동이 잘되는 사람과 일하는 것(4.55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응답하였으며,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갖는 것 순으로 응답했다.

직무가치관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꾸준함과 안정(4.14점), 변화와 발전(4.05점), 인내하는 것(4.04점)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통에 대한 존경은 3.1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취업 시 상사와의 연령차이가 많이 날수록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고용창출을 위한 제주지역 무역관련 인력양성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 수출기업과 제주도내 대학생 간 고용실태 및 취업의식 조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분석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용자’와 ‘구직자’간의 인식격차와 함께 정책적·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무역관련 인력양성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제시 할 수 있다.

1) 제주도의 무역인력 양성 지원 정책 확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인력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낮은 임금수준과 함께 열악한 작업환경 및 구직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인식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인력양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인력공급의 불균형문제는 제주지역 차원에서 세부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먼저 제주지역 무역인력양성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주지역 무역관련 업체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 무역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무역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은 대학생들에게는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기업체 임직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새로운 무역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수출유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제주세관)등 비용적·공간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 가능한 기관이 무역인력양성에 적극 협력하여 새로운 무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비무역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신규인력 채용 시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무역인력 인턴 임금부분지원사업⁶⁾을 실시하여 수출기업과 대학생 간의 요구 임금요구 수준의 격차를 절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무역인력부족으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도정의 수출마인드 의식 개선

제주도 수출업무는 민선 4기까지 담당 계 직제로 운용되어 왔으나, 민선 5기 도정의 '수출 1조원' 공약에 힘입어 수출진흥본부장(3급)과 수출진흥관(4급)을 두며 조직을 확대·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제주도는 「수출진흥본부」를 「국제통상국」으로 축소한다 이어, 2016년 5월 「국제통상국」 폐지를 포함한 두 번째 조직개편안⁷⁾<표 IV-49>을 확정시켰다. 이 조직개편안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관광국」을 신설하고,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통상국」을 폐지, 통상기능이 기존 「경제산업국」에 흡수되어 「경제통상산업국」으로 통합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 활력 제고'라는 목표로 다양한 수출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앞서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시책과는 다른 정책적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출기구의 축소·폐지 정책은 제주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이 무역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제주도의 무역환경

6)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제주도 수출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 무역전문가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37대 도지사 취임, 인사이동 등 내부사정으로 시행 6개월 만에 폐지되었음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지방공무원정원·사무위임'조례 입법 예고

을 개선하고 수출 증대를 통한 제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체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IV-49> 제주특별자치도 2차 조직개편안

현 행(13국 49과)			개 편 안(13국 48과)		
소관별	실·국·본부	관·과·담당관	소관별	실·국·본부	관·과·담당관
행정 부지사 (12국 44과)	(직속)	총무과	행정 부지사 (12국 44과)	(직속)	총무과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세정담당 관, 정보화담당관, 청렴감찰TF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정보통신융합담 당관, 청렴감찰관
	안전관리실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		안전관리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 통안전과
	공항공청 지원본부	공항공청지원과			정무부지사 소관 편제
	특별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과,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		특별자치국	자치행정과, 특별자치법무과, 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4·3 지원과
	문화관광 스포츠국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관 광산업과, 스포츠산업과, 카 지노감독과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평화대외협력과, 체육진흥과
		(신설)		관광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감독과
	국제자유도시 도시건설 교통국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디자인 건축지적과, 건설과, 교통정 책과		도시건설국	도시창조과, 건축도지정보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보건복지 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 지과, 여성가족정책과, 보건 위생과		보건복지 여성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 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소방 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 종합상황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환경 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산보전과, 생활환경관리과, 산림휴양정 책과			정무부지사 소관 편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경제통상 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통상지원과, 미래에너지과, 전략산업과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식품산업과, 감귤특작과, 축산정책과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원예특작식품 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물류과		
정부 부지사 (1국 5과)	(직속)	의회협력담당관, 소통정책관	정부 부지사 (1국 5과)	(직속)	공보관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폐지
		(이관)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이관)		공항공청 지원본부	공항공청지원과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행정기구 설치·지방공무원정원·사무위임'조례 입법 예고

3) 제주지역 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대학교육과정의 개선

제주지역 기업에서 요구하는 무역업무는 수출입관련 정보의 수집과 바이어와의 거래상담, 계약 체결, 해외시장동향 조사 및 개척, 외환, 물류 및 통관, 관세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무역교육은 실무보다는 이론위주의 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무역분야에 대한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제주지역특화 및 특성화 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체 현장방문, 국내·외인턴십,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1차적인 현장실습을 통하여 무역경험을 쌓고, 실제 업계에서 요구에 부합하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현장정보습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현장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채용 혹은 관련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제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무역에 관한 실무교육을 위하여 무역전문인력 학습센터를 건립하여, 무역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 양질의 무역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무역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함께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이론과 실습교육의 결합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기업에서는 채용 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무역인력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지역 무역관련 업체는 수출마케팅 방법으로 ‘해외박람회 참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해외바이어 업체의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전 전시박람회 실전기법 산학실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업체가 운영 하는 도내 매장에 예비무역인력을 배치하여, 전시박람회 참가 프로세스, 전시박람회 조사 및 바이어 DB확보기법, 미팅 레포트 준비, 세일즈 미팅 노하우, 실전 해외영업 가격협상 전략, 사후 바이어관리 기법 등 전시박람회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한다면 취업 후 실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하였을 때,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산·관·학 교류 확대

제주지역 업체들은 대외 수출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FTA를 이용한 수출입통관, 관세, 원산지증명 등의 FTA전문지식과 전반적인

무역실무에 대한 역량을 갖춘 무역인력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무역학과에서는 FTA전문 지식, 국제마케팅, 해외시장조사 등을 활용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양하고자 국제무역론, 국제경영학, 국제운송론, 외환론, 무역실무, 무역영어, FTA와 제주경제, 국제지역경제론 및 중화권비즈니스실무 등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무역관련 이론을 습득함과 동시에 FTA활용 지식을 함양하여 제주특화형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 교육 이후 실제 적용하고 응용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나 도내 무역유관기관에서는 ‘한·중 FTA활용 전문가 양성교육’ 등 무역인력양성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나 연 1회 모집으로 횟수도 적고 교육대상이 업체 임직원로 한정되어 있어 대학생들이 교육을 참가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는 산업체와 대학교육기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제주도가 대외시장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고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산·관·학 협동 정기 워크숍 개최, 유기적 협력하의 현장 방문교육 및 실습 제공 등 무역전문인력 양성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무역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고 무역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무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주요 수단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역 관련 분야의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정은 FTA시대를 맞아 경제 지도가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 업계에 대한 지원정책 및 상대적으로 낙후된 무역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무역 관련 산업의 인적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무역인력양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의 경제·고용동향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 무역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이론적 접근 방법과 실증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주요 분석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동향 및 고용동향이며 분석기간은 2004년에서 2016년이다. 분석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K-stat,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체 조사를 사용하였다. 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4.2% 와 3.9%로 전국 평균 증가율 3.70%, 3.79%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대비 1.41%에 불과하다. 이는 제주도의 일자리가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2015년 3월 이후 제주지역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증적 접근방법으로 정확한 고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6년 5월1일부터 16일이다. 설문조사는 업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의 경우 제주대학교 경상계열 1~4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제주지역에서 취업 희망 시 애로요인을 분석한 결과 근무조건의 부족이 주요 요인들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선택 시 고려되는 요인으로는 급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지역 업체들의 경우 직원 신규채용 시 중요 기초 소양으로 외국어 등 무역실무의 비중이 크게 조사됐다. 제주지역 대학생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채용을 “원한다”와 “매우 원한다”의 응답이 많아 인력 수급에 문제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업체들이

82.8%나 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임금조건의 불일치(37.9%)라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업체들과 대학생들 간에는 임금 등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제주지역 무역인력양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무역인력 양성 지원 정책 확대이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역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기업체 임직원에서 대학생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예비무역인력 양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규 인력 채용 시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무역인력 인턴 임금부분지원을 실시하여 수출기업과 대학생 간의 요구 임금요구 수준의 격차를 절충한다.

둘째, 제주도정의 수출마인드 의식의 개선이다. 지난 1월 제주도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 활력 제고’라는 목표로 다양한 수출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당해 5월에 민선 5기부터 수출업무를 담당하던 수출전담기구를 폐지하여 앞서 발표한 육성시책과는 다른 정책적 방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무역구조는 수입보다는 수출을 통한 산업이 주가 되는 현 시점에 제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산·관·학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제주지역 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대학교육과정 개선이다. 무역분야에 대한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제주지역특화 및 특성화 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현장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채용 혹은 관련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제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한다. 무역에 관한 실무교육을 위하여 무역전문인력 학습센터를 건립하여, 무역 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 양질의 무역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전 전시박람회 실전기법 산학실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취업 후 실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하였을 때,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산·관·학 교류 확대이다. 제주도가 대외시장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또한 산·관·학 협동 정기 워크숍 개최, 유기적 협력하의 현장 방문교육 및 실습 제공 등 무역전문인력 양성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무역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무역인력 부족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된 무역인력양성 방안을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기업 및 제주지역 대학의 인력양성과정에서 활용한다면 산·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장기적 무역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도 무역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학민, “FTA시대의 선도형 무역인력 양성”,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pp.28-37, 2015.

김학민 · 이호형, “무역인력 핵심역량 조사·분석”, 무역학회지 제35권 제3호, pp.65-88, 2010.

김학민 · 이호형, “무역인력 성장경로와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pp.101-123, 2009.

김학민 · 이호형 · 이흥기, “무역인력 역량의 기대 불일치에 관한 실증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pp.203-228, 2008.

김학민 · 이호형 · 이흥기, “무역인력 역량의 기대불일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pp.1038-1063, 2008.

김학민 · 이호형 · 안지정, “무역인력의 조기경력개발계획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3호, pp.247-270, 2006.

권영대, “제주 수출산업의 현황과 육성 전략”, 한국은행 창립기념 2011년 지역경제세미나, 2010.6.

라공우 · 홍길종, “강원지역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29-152, 2014.

라공우, “고용실태조사를 통한 무역인력양성방안-인천지역 무역관련업체를 중심으로-”, 아·태비즈니스연구 제2권 제2호, pp.79-100, 2011.

라공우, “인천지역 무역관련업 고용실태조사를 통한 고용창출방안연구 (무역, 물류, 관세사업중심으로)”,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 2008.

박광서 · 유광현, “글로벌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7권, pp.329-360, 2008.

산업통상자원부 편집부,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pp.1-8, 2015.

안세영 · 심상렬, “무역의 사이버화와 우리 나라 사이버 무역인력 수급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4권 제3호, pp.297-317, 1999.

오원석, “무역전문인력 양성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용역 보고서, 2009.

윤창기, “글로벌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이호형, “대학의 산학협력 무역인력 양성이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pp.307-327, 2015.

이승훈,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pp.27-24, 2003.

임소진·이용완·김윤정, “제주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 pp.257-289, 2008.

조정곤, “산·관·학 협력을 통한 무역전문인력 양성의 과제”, 통상정보연구 제10권 1호, pp.415-435, 2008.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2016년 3월 제주지역 수출입동향”, 2016.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2015년 제주 수출입 평가 및 2016년 전망”, 2016.

한영수, “무역인력양성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pp.51-61, 2003.

호남지방통계청, “2015년 12월 제주지역 산업활동동향”, 2016.

호남지방통계청, “2015년 4/4분기 및 연간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 2016.

홍정순·채창균, “제주지역 청년인력 수급의 불균형 해소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1-9.

<웹사이트>

FTA강국, KOREA : <http://www.fta.go.kr/main/>

KOSIS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제주특별자치도 : <http://www.jeju.go.kr/>

제주도민일보 : <http://www.jejudomin.co.kr/>

호남지방통계청 : <http://kostat.go.kr/office/hnro/index.action/>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http://www.stat.kita.net/>

Abstract

A Study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of the trade exper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Won Ka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Facing the FTA era, Jeju local government i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and the expansion of support policies to industrial companies and trade basis systems. However, there are only few studies about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Jeju. Moreover, it is difficult to conduct trade-related business efficiently because Jeju is suffering from the lack of the infrastructures of human resources for trade. In this thesis, theoretical approach and empirical approach are used to study abou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of trade for Jeju. In the theoretical approach, economic trends and employment trend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investigated about statistical data from 2004 to 2016. In the empirical approach, a questionnaire survey is performed to analyze the employment status of trade professionals. The questionnaire survey targets are export companies and university students in Jeju.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show the export companies highly require more trade professionals and the university students want the jobs which meet their conditions. The major reasons for this employment mismatch are the lack of practical business abilities and the disagreement over pay conditions. To overcome these problems,

four method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re proposed. First, Jeju local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support polici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include educational trade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Second, the improvement of consciousness about export mind of Jeju local government. Third, university education curriculums should be improved and practically experienced experts should be invited to inspire the university students. Fourth, industry- government-university collaborations should be enhanced to maintain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during the long-term. This study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of the trad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rade infra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감사의 글

배움의 설렘을 안고 대학원 생활을 한지도 어느덧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석사학위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들어오기 전과 지금의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배움의 깊이와 넓이는 얼마나 커졌는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석사과정을 졸업하기 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논문을 마치며 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지도해주신 라공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연구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GTEP사업단 지원팀장을 맡은 동안 무역학과 선배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알게 해주신 이용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생 선배로서 교수님의 진심어린 조언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힘든 일이 있거나 막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서 얘기하라고 말씀해주신 김희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인생의 선배로, 때로는 친구처럼 학문적인 부분이나 인간적인 부분으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윤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의 편협한 시각이 넓어짐을 느낍니다.

무역학과 학생들을 위하여 애정으로 보살피 주시는 무역조교선생님 아라누나, GTEP사업과 대학원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GTEP과 무역학과 일이라면 자기 일처럼 도와준 귀염둥이 건예, GTEP사업단과 인연을 맺은 6·7·8·9·10기 모든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친동생처럼 저를 챙겨주신 현진이누나, 기윤이형, 종일이형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즐거운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척 연락을 못해도 섭섭해 하지 않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마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사일이,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병협이, 일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많은 부분을 조언해주는 영민이,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군소리 않고 재

워준 진석이, 항상 내편을 들어주는 현일이, 툭툭 거리면서 삶의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두진이, 그 외에도 많은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종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정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고 아껴주는 세훈이형,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하게 조언을 해준 한울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작은아들에게 사람의 됴됨이와 배움의 열정을 보여주신 아버님, 헌신하며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못난 작은아들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를 지지해주신 부모님께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느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우리 형, 형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이곳에 미처 적지 못한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06월

강세원 올림